

2025 상반기 특별전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
 Date... 2025.3.1. ~ 7.13.
 Place...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본군(광복군)은 3천여 년의 줄기찬
 항적(抗敵) 복국정신을 받들고,
 국내외 무장혁명의 대통을 계승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 전시

독립신문

vol.12
2025년 4월
(대한민국 107년 4월)

독립신문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vol.12
 —
 한국광복군



「독립신문」웹진 바로가기



www.nmkpg.go.kr



www.facebook.com/imjung0411



www.x.com/imjung0411



www.instagram.com/imjung0411



www.youtube.com/imjung0411



www.blog.naver.com/imjung0411

발행인 김희곤
편집인 김종규
편집주간 강경표
편집기획·진행 강도예·이영조·홍민서

ISSN 2951-0430
발행일 2025년 4월 1일
발행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4
홈페이지 www.nmkpg.go.kr
전화 02-772-8708
웹진 nmkpg.go.kr/webzine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기념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독립신문 vol.12

vol.12

특집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청에서 창설한 정규군입니다.

한국광복군은 국내외 초모공작 및 선전활동을
진행하며, 광복군의 활동과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널리
알렸으며, 인도·버마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고
미국 OSS와 함께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광복 후 한국광복군 출신들은 국군의 주축이 되어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군의 뿌리가 된 한국광복군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 이 책에 담긴 내용과 자료의 저작권은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과 각 소장처에 있습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집_한국광복군

- 02 한국광복군 창설과 초기 운영
- 06 한국광복군의 활동
- 10 독립의 의지, 군복에 담다: 한국광복군의 군복
- 12 해방 후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서 온 소식

- 16 조국광복을 위해 목숨 바친
한국 독립군의 활약상을 보도한 『독립신문』 기사

임시정부의 인물들

- 20 여성 한국광복군의 활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임시정부의 자료

- 24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배지

모두의 독립운동

세계의 독립운동

- 26 문학을 구심점으로 독립운동의 불꽃을 피운 나라, 폴란드

기념관

특집

- 30 광복 80주년 기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5년 상반기 특별전시,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

- 34 삼일절 계기 체험프로그램
<기억해요! 그날의 함성: 대한독립만세>

전시/교류

- 38 자율주행 기반의 문화해설 서비스, 인공지능 로봇 '큐아이' 등

문화/행사

- 40 '기증자의 벽' 제막식 개최 등

- 42 소식

한국광복군 창설과 초기 운영

— 글. 류동연(국가보훈부 학예연구관)



광저우 황포군관학교의 현재 모습

한국광복군 창설 배경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의 국군이다. 한국광복군의 창설 배경으로는 먼저 임시정부의 지속적인 군대 편성 노력을 꼽을 수 있다.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성립된 임시정부는 군대를 편성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하고자 했다. 1919년 11월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관제」를 발표하여 군무부의 조직과 직무를 명문화했고, 12월 군무부령 제1호로 「대한민국육군임시관제」를 통해 육군 창설을 구체화했다. 임시정부는 군단을 구성한다는 목표로 1만 3천에서 3만여 명 수준의 군대편성을 계획했고, 만주지역의 수많은 독립군 단체를 임시정부 산하로 통할하고자 했다.

비록 임시정부의 군사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으나, 군대를 편성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하고자 했던 임시정부의 정책은 변함이 없었다. 1930년대 들어와 만주사변의 발발(1931), 이봉창·윤봉길의거(1932), 중일전쟁의 발발(1937)로 인해 중국 관내지역 한국독립운동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특히 중일전쟁을 계기로 임시정부는 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처럼 임시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한국광복군의 창설로 이어졌던 것이다.



안춘생의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증(1936)

한국광복군 창설의 또 다른 배경으로 1910년대부터 중국의 군관학교를 통해 군사간부가 지속적으로 양성되었다는 점과 중국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세력이 1930년대 중국 관내지역으로 이동한 점을 들 수 있다. 1910년대에는 운남강무당과 귀주강무당 등에서 한인청년들이 군사훈련을 받았다. 1920년대에는 임시정부와 한인노병회를 비롯하여 중국육군군관학교(통칭 황포군관학교)에서 한인들이 훈련받았으며, 1930년대에는 중국 측의 지원을 받아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낙양군관학교 등에서 군사간부가 양성되었다. 이렇게 군사간부로 양성된 한인들은 중국군이나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했으며, 훗날 한국광복군의 주요 성원이 되었다. 또한 1930년대 중국 만주에서 관내지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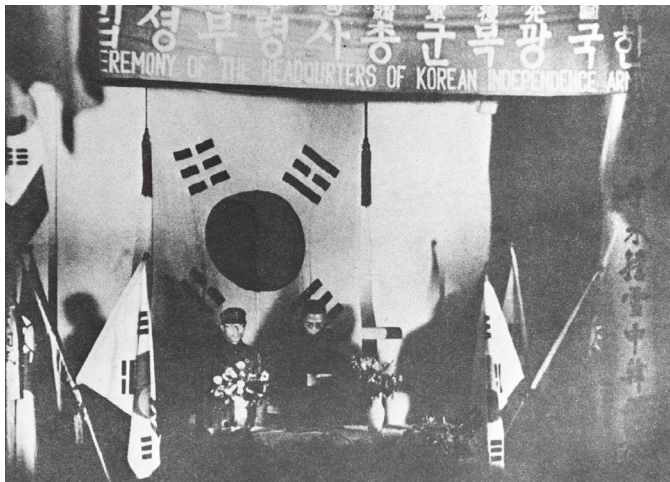
이동한 무장 독립군 세력은 한국광복군 창설 과정부터 참여하여 광복군의 조직과 운영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끝으로 1930년대 후반 중국 관내지역에서 창설된 조선의용대와 한국청년전지공작대와 같은 한인무장부대도 한국광복군 창설의 배경이 된다. 한국광복군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관내지역의 좌익 무장부대인 조선의용대와 무정부주의 계열 청년을 중심으로 조직된 한국청년전지공작대가 한국광복군 창설에 자극이 되었다고 분석한다. 당시 중국 관내지역 한인무장세력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 이는 한국광복군의 창설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 두 무장 세력은 훗날 한국광복군으로 통합된다.

한국광복군 창설의 경과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임시정부는 본격적으로 군사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37년 7월 15일 임시정부는 만주지역에서 독립군을 조직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던 유동열, 이청천, 김학규 등을 중심으로 군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군사정책과 활동을 담당시켰다. 또한 1939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군사양성과 독립전쟁 수행에 관한 핵심 계획을 담은 「독립운동방략」을 결정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한국광복군 창설이 추진되었다.

군대를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병력과 무기, 그리고 재정 확보가 필요했다. 이는 한국광복군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중국지역에서 임시정부 군대, 즉 중국 입장에서 '외국'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 국민정부의 지지가 필요했다. 따라서 한국광복군 창설은 크게 병력 모집, 재정 확보 그리고 중국 국민정부의 양해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전례식 개최를 선포하는 김구와 옆에 선 김학규(1940. 9. 17.)

첫 번째 병력의 모집은 군사특파단을 통해 진행되었다. 임시정부는 조성환을 책임자로 하여 군사특파단을 조직한 후 중국 시안西安으로 파견하여 병력을 모집하고자 했다. 당시 시안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화북지역과 최전선을 이루는 곳이었다. 자료가 다르지만 화북지역에는 약 20만에 달하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이와 같은 정세에 주목하여 화북지역의 한인들을 한국광복군의 병력으로 모집하고자 했던 것이었고, 군사특파단은 중국군 제2전구 사령관 옌시산嚴錫山的 협조 아래 한인들을 모집했다. 한국광복군에 관한 한 연구는 군사특파단이 광복군 창설의 산과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한다.

둘째로 군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미주 동포들의 지원은 재정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사실 미주 동포들의 재정적 지원은 임시정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임시정부는 미주 지역에 광복군 창설 소식을 알리면서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주 동포들은 한국광복군 창설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미주 동포들의 지원은 임시정부가 광복군 창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끝으로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 창설에 대해 중국 국민정부의 지지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 내에서 군대를 조직하는 일에는 중국 당국의 승인과 양해가 필요했다. 그리고 미주 동포들의 지원만으로는 군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기에 중국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얻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임시정부 측에서는 중국 당국의 주자화朱家華, 쉬언정徐恩曾 등에게 한국광복군 창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군사위원회의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0년 5월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 편성 계획서인 「한국광복군편편계획대강」을 제출하고 광복군 편성의 인준과 이에 대한 재정적 원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제스蔣介石는 “한국광복군이 중국항전에 참가한다.”는 전제하에, 군사위원회에 협조를 지시했으나, 실무진들은 한국광복군이 군사위원회에 예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임시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했다. 때문에 한국광복군의 창설은 큰 진전을 보지 못했고, 결국 임시정부에서는 중국 측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임시정부는 그동안 중국 관내지역에서 양성해 온 군사간부들과 만주 독립군 출신을 중심으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구성했다. 그리고 1940년 9월 15일 「한국광복군 선언문」을 발표하고,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식을 거행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 선언은 중국 국민정부 실무자들과의 협의 없이 발표되었는데, 임시정부가 독자적이고 자주권을 가진 광복군을 창설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중



한민기미술관

광복군 제2지대 사열사진

국 충칭의 자링빈관嘉陵賓館에서 중국 국민정부의 인준 없이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전례식이 거행되었고,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

한국광복군 초기 조직과 변천

한국광복군의 창설은 임시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군대 편성의 계획을 실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40년 9월 17일 창설 당시 구성이 완료된 조직은 총사령부뿐이었다. 한국광복군은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부대를 갖추지 못했다. 때문에 우선 동원이 가능한 인원으로 총사령부를 구성하고 이후 군대로서 조직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총사령부의 조직 체제는 1940년 10월 9일 공포된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조직조례」에 따라 체계화되었다. 총사령부는 임시정부 주석의 직할하에 있었다. 그리고 광복군의 지휘 통솔을 관장하는 총사령(이청천)과 그를 보좌하는 참모장(이범석)을 중심으로 10개 처處的 부서가 설치되었고, 특무대와 헌병대를 두었다.

총사령부는 창설 직후 시안으로 이전했다. 시안에는 이미 군사특파단이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화북지역과 가까운 전선으로 이곳에 이주해 온 한인들을 대상으로 초모·선전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기도 했다. 임시정부는 제1기의 임무로 장병을 모집하여 훈련시키고 최소 3개 사단을 편성하여 항일전에 참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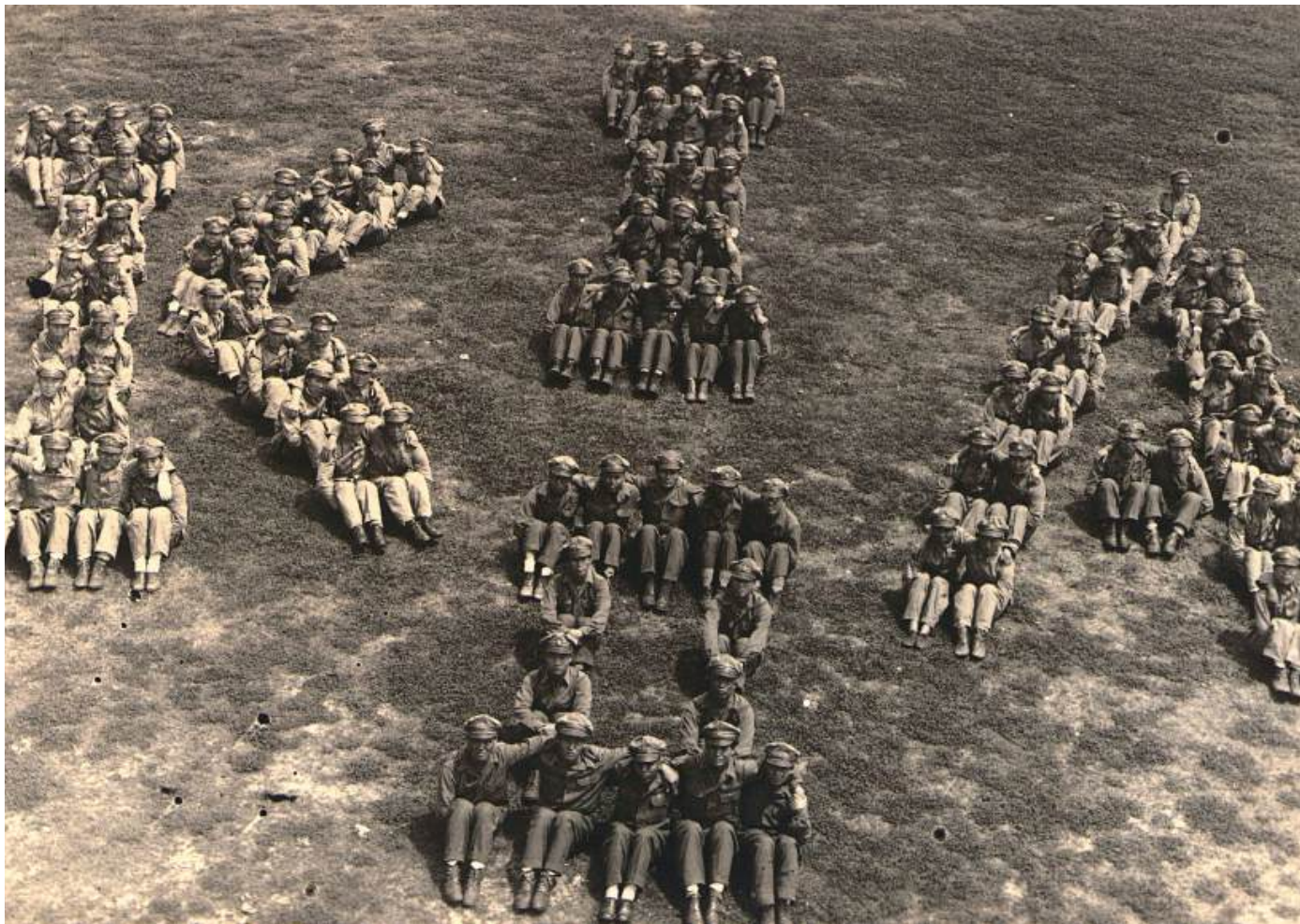
시안에 총사령부가 설치되면서 한국광복군의 본격적인 군사

활동이 시작되었다. 총사령부는 충칭에서 온 인원과 군사특파단 인원을 중심으로 제1·2·3지대를 구성하고, 1941년 1월 한국청년전지공작대를 편입시켜 제5지대로 구성했다. 특히 한국청년전지공작대는 한국광복군 합류 이전부터 시안을 거점으로 초모공작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보았고, 이러한 성과가 한국광복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의 합류에 따라 총사령부와 단위부대로 4개 지대를 갖추게 되었다.

제1지대는 군사특파단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대장은 이준식이 맡았다. 제2지대는 주로 총사령부 인원들로 구성되었고, 지대장은 공진원이었다. 하지만 제3지대는 지대원 없이 지대장 김학규 외에 다른 조직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5지대는 한국청년전지공작대가 편입됨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지대장은 공작대를 이끌던 나월환이 맡았다.

이와 같은 체제는 1942년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어 대폭 개편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1941년 말부터 중국 관내지역 좌파세력의 임시정부 참여가 논의되었다. 그 결과 1938년 10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창설되어 활동하고 있던 조선의용대가 1942년 5월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되었다.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됨에 따라 우선 총사령부에 부사령제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는 한국광복군의 제1지대로 편성되었다. 제1지대는 충칭에 본부를 두었으며, 지대장은 조선의용대를 이끌던 김원봉이 맡았다. 김원봉은 총사령부의 부사령을 겸임했다. 제1지대는 지대본부와 2개의 구대區隊로 구



광복군 제2지대 대원 기념

성되었는데, 후베이성湖北省 라오허커우老河口와 저장성浙江省 진화金華에서 활동했다.

제2지대는 시안에 본부를 두었다. 제2지대는 기존의 제1·2·5 지대가 통합되어 구성되었으며, 지대장은 총사령부 참모장이었던 이범석이 맡았다. 편성 당시 약 80여 명의 대원을 확보하였다. 총무조와 정훈조로 구성된 지대본부, 산하에 3개 구대를 편성했다.

제3지대는 안후이성安徽省 푸양阜陽에 본부를 두었다. 김학규를 지대장으로 한 제3지대는 편제상으로 존재했으나, 1942년부터 안후이성 푸양을 중심으로 초모활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 일본군 내의 한적사병韓籍士兵들이 탈출해 온 경우도 많았다. 이들을 기반으로 1945년 6월 제3지대가 정식 발족되었다.

한국광복군은 창설 직후 운영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1941년 '9개 준승'에 따라 중국 군사위원회에 예속되어 자주권을 잃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자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1944년 다시 자주권을 회복했다. 또한 연합국과도 공동작전을 추진하여 인도·버마 전선에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공작대를 파견하기도 했으며, 미국 OSS와 협의하여 국내진공작전을 위해 비밀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광복군의 창설은 임시정부의 지속적인 군사정책의 결실이었다. 또한 미주 동포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서 창설·운영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광복군은 스스로가 밝혔듯이 대한제국 군대를 계승했으며, 만주독립군 출신들이 대거 참여하여 독립군의 인적 맥락을 이어받았고, 해방 후 광복군 출신들이 대한민국 군대에 참여했다. 따라서 한국광복군은 [대한제국군-만주독립군-한국광복군-대한민국 국군]으로 연결되는 한민족의 군사 정통을 이어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중앙육군관학교 전시간부훈련단 한국청년훈련반 제3기 졸업사진

한국광복군의

활동

— 글. 김광재(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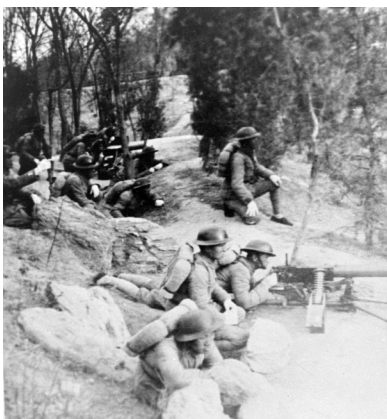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은 중국의 전시수도인 충칭重慶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창설되었다. 중국 영토에서 활동해야 하는 제약하에서도 광복군은 병력을 모집하고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통해 국제적 여론을 끌어내고 국내외 동포들에게는 광복군의 활동과 한국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널리 알렸다.

국제적으로도 연합군의 대일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광복군은 인도·버마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여 영국군과 함께 대일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미국 전략첩보국OSS과 합작하여 특수훈련을 받은 광복군 대원들을 국내에 침투시켜 대일전쟁을 수행하는 한미 공동작전을 전개하였다.



©독립기념관

구보 중인 광복군 대원들



©독립기념관

훈련 중인 광복군 대원들

초모공작 및 선전활동

광복군은 당초 총사령부만으로 창설되었고, 창립 1개년 후 최소한 3개 사단을 편성한다는 것을 당면전략으로 삼았다. 즉 우선 동원 가능한 인원으로 창군부터 하고 이후 병력을 확보하여 부대 규모를 확대 강화해 간다는 전략이었다.

따라서 광복군은 병력을 모집하는 초모공작을 활발히 수행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화북 지방에는 많은 한인들이 이주해 있었다. 광복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적지 않은 한인 청년들을 모집하였다. 아울러 1944년 이후 학병으로 중국 전선에 끌려온 한인 청년 수십 명이 일본군을 탈출하여 광복군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병력 모집 활동 결과 창설 당시 수십 명에 불과하던 광복군은 1945년 8월 전후 약 7~8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시안西安에서는 중국군 중앙전시간부훈련단에 한국청년훈련반을, 안후이성 린취안臨泉에서는 한국광복군훈련반이 설치되어 이들 모집된 청년들을 군사 초급간부로 양성하였다.

광복군은 선전활동을 중시하였다. 광복군의 창설 사실과 그 존재를 알리고 광복군이 국제적인 지위를 얻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일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선전활동이 대단히 중요하였다. 그래서 광복군은 선전활동을 주요한 당면공작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광복군은 선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총사령부에 정훈처와 선전과를 설치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동포들을 상대로 한 선전방침은 주로 적 점령 지역 내에 있는 동포들에게 집중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광복군에의 참여와 지원을 위해 선전공작을 전개하였다. 또 중국전선의 일본군 내 한적사병들도 선전활동의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광복군이 국제적인 지위를 얻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일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합국의 국제적 여론과 동정을 유도하는 선전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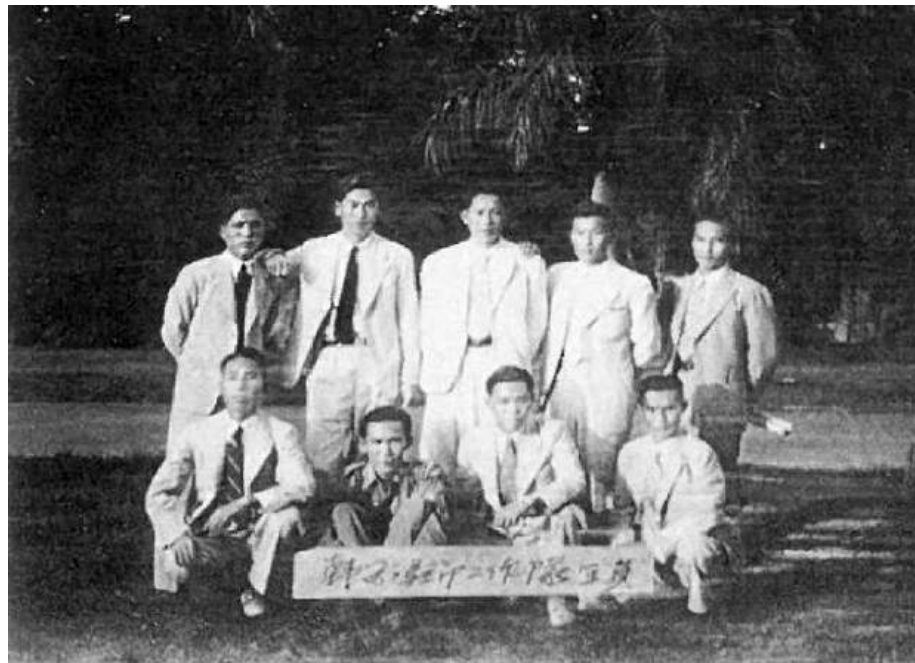
아울러 충칭 방송국을 통해 광복군에 대한 국내외 동포들의 참여와 지원을 촉구하였다. 즉 3.1절이나 광복군 창설 기념일, 기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기념선언문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렸다. 그 밖에도 기관지『광복』을 발행하여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

인면전구공작대 파견

광복군은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발발 후 인도·버마 전선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싸우고 있던 영국군과 협동하여 대일전을 수행하였다. 일본군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원을 필요로 했던 인도 주둔 영국군의 요청을 받은 광복군은 1943년 8월 광복군 대원으로 구성된 인면전구공작대를 파견하였다.

인도 현지에 도착한 공작대 대원들은 영국 인도군총사령부에서 영어와 방송기술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마친 대원들은 영국군에 분산 배치되었다. 일본군과 접전하고 있는 최전선에 투입된 공작대는 일본군에 대한 선무공작, 후방지역의 교란, 일본군 포로의 심문, 노획한 문서의 번역 등 전쟁 수행을 돕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공작대는 1944년 초부터 영국군과 일본군이 대접전을 벌였던 임팔 전투에 투입되



©독립기념관

인도·버마 전선에서 활동한 인면전구공작대원들

었다. 당시 연합군 측은 일본군에 의해 점령된 이른바 버마공로 탈환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이 작전이 임팔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텔리에서 훈련을 마친 공작대는 부야크에 집결한 뒤 임팔 전장으로 투입되었다. 이때 공작대는 대적 선전, 포로 심문, 적 문서 번역 등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공작대는 정확한 적 정보의 분석과 적의 무선전신을 통해 일본군의 작전계획을 사전에 알아내어 일본군에 포위되어 위기에 처해있던 영국군이 이를 벗어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 영국 신문들은 이들의 활약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1945년에는 버마에서 일본군을 축출하는 버마 총반격전에 참여하였다. 공작대는 영국군 전투부대에 분산 배속되어 이 작전에 참여하여 인상적인 활동을 펼쳤다. 버마 최대의 격전지였던 만달레이 공방전에 합류한 것을 비롯해 버마의 수도 양곤 상륙작전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공작대의 활동은 일본군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영국군의 포로가 된 일본군은 광복군이 인도·버마에까지 파견되어 영국군과 함께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공작대 대원들의 활약이 양호한 성과를 거두게 되자, 영국군에서는 더 많은 인원의 파견을 임시정부 측에 요청해왔다. 이를 계기로 임시정부는 영국군과 공식적인 협정의 체결과 인원의 증파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광복군을 지휘하던 중국군사위원회의 견제 등 복잡한 내외 정세로 인해 공작대 인원 증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는 1943년 8월 인도에 파견된 이래 1945년 7월 인도·버마 지역에서의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2년간에 걸쳐 대원 10명이 영국군과 함께 대일작전에 참여하였다. 공작대는 일제가 항복한 후 9월 충칭의 광복군 총사령부로 복귀하였다. 공작대의 활동은 영국군이 대일작전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나아가 한국 독립운동의 공간을 확대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주목되는 것이었다.



한국광복군 제2지대 주둔지인 두곡양참(중국 시안)

©독립기념관



독수리작전 훈련 당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사열한 한국광복군 제2지대원들(1945. 7. 4.)

©독립기념관

국내진입작전 추진

광복군은 인도·버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협력하여 대일전에 참여한 데 이어 미군과도 협작을 추진하였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즉각 대일 선전포고를 발표하였으며 미국에 대해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에 참전할 뜻을 천명하였다. 그 후 임시정부는 미국 정부 혹은 주중 미군사령부에 대해 한인의 대일전 참여를 지속적으로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광복군은 태평양전선에서 일본군을 무찌르면서 복상하고 있는 미군과의 협작을 모색하였다. 1944년 9월 광복군은 충칭 주재 미국 OSS에 대일 심리전을 제안하였다. 미국으로서도 대일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복군 대원들을 대일작전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5년 1월 중국전선에 학병으로 끌려왔다가 탈출한 한인 청년들이 충칭의 임시정부로 찾아온 일은 광복군과 OSS의 협작을 급진전시켰다.

그 결과 1945년 광복군과 OSS의 협작은 ‘독수리작전’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즉 광복군 대원들을 훈련시켜 서울 등 한반도의 전략거점에 투입하여 정보수집과 게릴라활동을 전개한다는 국내진입작전이었다. 이들은 국내 거점에서 각 지역의 일본군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합군의 상륙이 임박할 경우 지하운동을 조직하고 한국인의 봉기를 지원하기로 되었다.

국내진입작전을 위해 한미 양측은 시안 주둔 광복군 제2지대 본부에 훈련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였다. 협작훈련 제1기 훈련생으로는 한인 학병 출신들과 기존의 광복군 제2지대 대원들에서 50명의 적격자들이 선발되었다. 주된 훈련 내용은 이들이 한반도에 침투해서 적의 중요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시 이를 무전으로 중국에 타전하기 위한 첩보훈련과 통신 무전 훈련이었다. 그 밖에 일본에 대한 심리전 기술, 연합군의 공중 폭격이나 상륙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기상학 교육도 포함되었다. 훈련생들은 “특히 통신에 있어서 특출하다”는 OSS의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성적은 대체로 우수했다. 학과 교육을 마친 후에는 야전훈련이 실시되었다. 야전훈련 역시 일정한 단계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의 훈련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8월 초 제1기 훈련생들이 약 3개월 과정의 엄격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한반도 투입 명령을 기다리게 되었다.

8월 5일 김구, 이청천, 임항섭 등 임시정부 및 광복군 수뇌부로 구성된 시찰단은 시안으로 날아가 광복군 훈련생들을 사열하고 격려하였다. 8월 7일 김구는 시안에 와 있던 워싱턴의 OSS 총책임자인 도노반과 한미공동작전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였다. 한미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공동작전의 조속한 실행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광복군이 추진하였던 국내 진입작전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미처 실행되지 못하였다. 8월 9일 시안에서 일본의 항복 소식을 접한 김구는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다”라고 탄식하였다.

대신에 광복군은 국내정진군을 조직하고 그 선발대로서 국내정진대를 서울로 진입시켰다. 하지만 일본군의 서울 진입 불허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군이 미국 OSS와 협력하여 국내 진입작전을 추진한 것은 광복군 인민전구 공작대가 영국군과 협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광복 직전 광복군이 거둔 귀중한 성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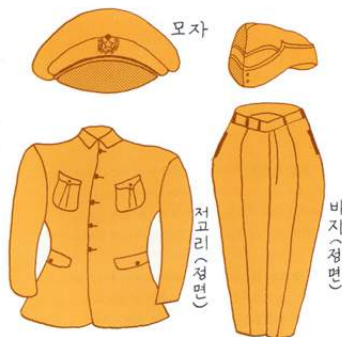
독립의 의지, 군복에 담다: 한국광복군의 군복

— 글. 김정민(한성대학교 글로벌패션산업학부 강사)



중국 국민정부군 군복을 착용한 대원들

©독립기념관



「육군제복도안」에 규정된
군모와 제복 상하의(『독립운동사』 제4권)

한국광복군이 착용한 군복은 무장 독립 투쟁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자, 한국광복군임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한국광복군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중국 국민정부군 군복, 독자적으로 제정한 군복, 미군 군복 등 다양한 군복을 입었으며, 이를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 국민정부군 군복은 가장 오랜 기간 널리 사용되었고, 독자적으로 제정된 군복이 병행되었다. 이 두 가지 군복을 중심으로 한국광복군의 군복을 조망해 본다.

한국광복군과 중국 국민정부군 군복

창설 초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한국광복군은 중국 국민정부군의 군복을 착용했다. 한국광복군의 생활을 회상하는 여러 회고록에서는 ‘중국 군복’을 입었다는 언급이 자주 등장하며, 이는 여러 사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大韓民國陸軍臨時軍制」를 통해 국군의 편성과 군복을 계획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광복군은 창설 당시부터 중국 군복을 착용했으며, 총사령부 성립전례식에서도 중국 군복을 입고 거행했다. 그들이 중국 군복을 착용한 이유는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국민정부와 긴밀한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며, 이는 중국 내에서 독립 투쟁을 원활히 지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국광복군이 착용한 중국 군복은 국민정부의 「육군복제조례陸軍服制條例」 상복常服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군복의 색상은 국민정부군이 오랜 기간 사용해 온 심회색深灰色이었는데, 이름만으로는 ‘짙은 회색’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푸른빛을 띠는 회색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광복군 관련 여러 회고록에서 ‘청색’으로 언급되어 회색보다는 청색으로 인지될 만큼 푸른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국 군복은 차양이 달린 원통형 군모, 제복 상·하의, 무장대武裝帶 또는 혁대, 각반과 군화 등을 포함한 복장이었다. 그중 원통형 군모는 한국광복군의 사진 속에서 중국 군복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특징적인 요소이다. 이는 중국과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독일 산악부대 군모를 도입한 것으로 보호대가 달려 있어 평소에는 차양을 위쪽으로 올려두고, 혹한의 날씨에는 내려서 얼굴을 감쌀 수 있는 기능적인 모자였다. 제복 상의는 중산복中山服에서 유래한 것이다. 중산복은 오늘날 중화민국에서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쑨원孫文, 1866~1925이 즐겨 입어 그의 호인 ‘중산中山’을 따서 명명된 재킷이다. 흔히 ‘인민복’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양에서는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이 즐겨 입었다 하여 ‘마오 슈트Mao suit’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중산복은 주름이나 장식 없이 실용성이 강조되었으며, 네 개의 큰 주머니가 달려 있어 군복의 기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 혁대 또는 장교의 상징인 무장대, 그리고 일자바지나 승마바지를 착용하고 각반 및 군화로 차림을 마무리하였다.

한국광복군이 제정한 독자적 군복

중국 군복을 착용하던 한국광복군은 1945년 2월에 이르러 비로소 독자적인 군복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광복군은 1941년 11월부터 「한국광복군행동9개준승韓國光復軍行動9個準繩」에 따라 중국 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았으나 1944년 8월에 9개준승이 취소되었다.



「육군제복도안」에 규정된
정모를 착용한 이덕산 대원
('不屈의 민족魂')



「육군휘장도안」에 규정된
장교 및 사병 모표('독립운동사' 제4권)



「육군휘장도안」에 규정된
정장正將 견장('독립운동사' 제4권)



태극 모표가 부착된 오광심의 군모와 태극 모표
('不屈의 민족魂')

그 이후 군무부 군사과장 조지영趙志英, 1916~1950이 고안한 「육군제복도안」이 1945년 2월 19일에 국무위원회에 의해 공포, 시행된 것이다.

「육군제복도안」은 군모, 제복 상·하의, 외투, 혁대, 구두의 규격을 정했으며, 그 색상은 모두 황색 계열로 지정되었다. 이 색상은 그동안 착용해온 중국의 청색 군복과는 큰 차이를 보였으나 당시 중국 국민정부군 중앙군은 초황색草黃色 군복을, 일본군은 다갈색茶褐色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기에 주변국들이 널리 사용한 군복 색상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군모는 정모正帽와 약모略帽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정모는 상부가 크고 차양이 달린 형태였으며 약모는 납작하게 접혀 휴대하기 편리한 형태로 그 도안은 영국군의 필드 서비스 캡field service cap과 유사하다. 제복 상의는 칼라와 여밈 형태, 네 개의 주머니가 부착된 점에서 중국 군복과 유사한 형태로 규정되었다. 또한 하의로는 긴 바지가, 그리고 더블 브레스트드double-breasted 형태의 외투와 앵클부츠 형태의 군화가 도안으로 지정되었다.

한국광복군의 정체성이 담긴 표지장 체계

앞서 언급한 「육군제복도안」과 함께 한국광복군의 독자적인 표지장標識章 체계인 「육군휘장도안」도 제정되었다. 이 휘장도안은 1945년 2월 29일에 공포, 시행되었으며 모표, 병과 휘장, 견장, 수장 그리고 단추까지 규정하였다. 이 표지장에는 태극, 무궁화 꽃송이와 나뭇가지, 별이 주요 문양으로 사용되었는데 「육군휘장도안」에서는 무궁화와 태극은 우리나라를, 별은 자유와 평화를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 문양들이 어우러져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번영하기를 기원한 것이다.

무궁화는 오랜 역사에 걸쳐 우리나라의 상징이었으며, 태극은 1919년의 「대한민국 육군입시군제」에서 군인의 모표 문양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육군휘장도안」이 제정되기 전부터 태극은 한국광복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모표로도 사용되었다. 즉 한국광복군은 청색의 중국 군복을 입었을 때에도 국민정부군의 청천백일靑天白日 대신 태극 모표를 착용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한편 태극과 무궁화 그리고 별은 대한제국 시기 군복의 표지장에 사용된 주요 문양들이었다. 이 문양들을 한국광복군 표지장의 문양으로 지정한 것은 총사령부 성립전례식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趙素昂, 1887~1958이 '대한제국군이 해산된 날이 광복군 창군일'이라고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광복군은 대한제국의 군사 전통을 계승하며 그 정통성을 이어가고자 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광복군이 착용한 군복은 단순한 의복을 넘어 독립 투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자 한국광복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징표였다. 한국광복군은 다양한 군복을 착용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조정해 나갔고 그 군복은 당시의 외교적,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상징이기도 했다. 한국광복군의 독자적인 군복과 표지장 체계는 그들의 정체성과 독립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으며, 해방을 꿈꾸던 이들의 희망을 담고 있었다.

해방 후 한국광복군

— 글. 김용달(前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위원회

김구 삼부자(왼쪽이 김인, 오른쪽이 김신)(1940년대)



©개민소장

김국주 사단장이 2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모습(1960~70년)

환국한 한국광복군의 사명

한국광복군(이하 광복군)은 민주공화제로 성립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하 임시정부)의 국군이었다. 그래서 광복군은 근대 민족의 식과 시민의식을 견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병·독립군으로 내려 온 민족군사의 대통을 잇는다는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졌다.

더욱이 ‘한국광복군 총사령 이청천’은 환국을 앞두고, 1946년 5월 16일 「한국광복군복원선언韓國光復軍復員宣言」을 발표하여 귀국하는 광복군 대원들에게 역사적 사명을 부여하였다.

본군(광복군)은 3천여 년의 줄기찬 항적抗敵 복국정신을 받들고, 국내외 무장혁명의 대통을 계승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전 대원이 귀국하여 조국건설 대업에 참가할 것을 명한다. …본군 복원 대원들은 모두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안으로 민주 단결을 실현하고, 밖으로 독립 평화를 달성하도록 한다.

귀국하는 광복군 대원들에게 조국건설 대업에 참여하여 민주 단결과 독립 평화를 달성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광복군 출신들이 해방 이후 국군에 참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광복군 출신들은 미군정기 창군 과정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대거 국군에 투신하였다. 그리하여 광복군 출신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과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나아가 6·25전쟁에 참여하여 조국을 수호하는 데도 크게 공헌한 것이다.

한국광복군의 창군 과정 참여

광복군 출신들은 임시정부 국군인 광복군이 해방된 조국의 국군 창설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래서 미 군정청이 주도하는 군대 창설이나 군사기관에 참여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더욱이 미 군정청의 '현상유지 정책'으로 식민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 등 친일 경력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상황도 광복군 출신들이 미 군정시기 창군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였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미국의 반대로 임시정부의 국군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환국하였고, 그것조차 배편 등 여러 사정으로 1946년 5월 이후에야 귀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1945년 12월 개설한 군사영어학교가 운영되다가 해체되고, 1946년 5월 조선경비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가 개교하여 제1기 생도를 모집한 뒤였다.

이런 상황에서 광복군 출신들이 미 군정청의 창군 작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생겼다. 1946년 9월 2일 광복군 참모총장 출신 유동열이 통위부장(국방부장)에 취임하고, 12월 23일에는 광복군 총사령부 고급 참모 출신 송호성이 조선경비대사령관에 부임하게 되었다. 이에 광복군 출신들이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1946년 9월 23일 선발한 제2기부터다.

조선경비사관학교에는 제2기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년 7월 입관한 제6기까지 적지 않은 광복군 출신들이 입교하여 창군 작업에 동참하였다. 이들을 기수별로 살펴보면, 제2기에는 송호성을 비롯하여 고시복·이명(이의명)·박영일·이무중·최용덕 등 6명이, 1947년 1월 선발한 제3기에는 박기성·박승현·박시창·전이호·채원개·최덕신·최봉진·한성도 등 8명이 입교하였다.

1947년 4월 선발한 제4기에는 강홍모·이건국 등 2명, 같은 해 10월 선발한 제5기에는 김소·김용관·문응국·박영준·박용운·박재곤·박종길·유영중·장철부·차약도·최규련·최세득·김명탁 등 13명이 입교하였다. 이밖에 1945년 12월 개설된 군사영어학교에 광복군총사령 전속부관 출신 유해준과 중국군 장교로 있다가 광복 후 광복군 베이징잠편지대 참모를 역임한 이성가가 입교하였다.

그리하여 미 군정시기 창군 과정에는 통위부장 유동열, 조선경비대사령관 송호성을 비롯한 조선경비사관학교 출신 29명, 유해준과 이성가 등 군사영어학교 출신 2명 등 모두 32명의 광복군 출신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광복군의 대한민국 국군 참여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과 더불어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방부가 설치되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포한 다음 날인 8월 16일 국방부는 훈령 제1호를 발포하여 “금일부터 아궤 육해군 각급 장병은 대한민국의 국방군으로 편성되는 영예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이로써 미 군정청에서 추진해오던 창군 작업과 그 군대가 국군으로 편성되었고, 국군이 공식적으로 창설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 군정청은 행정권을 이양하였다. 군사권 이양도 1948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미 군정청 통위부장 유동열은 대한민국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 이범석에게 군사권을 이양하였다.

미 군정청 조선경비대도 1948년 9월 1일 국군으로 개편되었다. 9월 5일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조선해안경비대는 해군으로 편성된 것이다.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개편되면서 조선경비사관학교도 육군사관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 과업은 완료되었고, 대한민국 군대는 ‘국군’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광복군 출신들은 대거 국군에 투신하였다. 임시정부 국군으로 활동한 광복군 출신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특히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장과 제2지대장을 역임한 이범석이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 광복군총사령부 총무처장을 지낸 최용덕이 국방부 차관에 임명되자 광복군 출신의 국군 참여는 크게 늘어났다.

육군사관학교 입교에도 이런 양상이 뚜렷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8월 17일 선발한 육군사관학교 제7기에는 김국주·김관오·김명천·박영섭·박영진·윤태현·이신성·장철·태윤기·황영식·황의선·이진영 등 12명의 광복군 출신들이 입교하였다. 이들 가운데 황영식을 제외한 11명은 특별반으로 입교한 뒤, 군사경력에 따라 특별 입관 형식으로 국군 간부가 되었다.

1948년 9월 5일 조선경비사관학교가 육군사관학교로 개편된 뒤 12월에 모집한 제8기에는 더 많은 광복군 출신들이 입교하였다. 임시정부 내무부 경위대장 및 한커우잠편지대장을 역임한 권준을 비롯하여 구자민·김병학·김영오·김영일·노복선·송영호·안춘생·이금렬·이준식·이홍근·장호강·전재덕·함세만·김동수·오광선·장홍·나태섭 등 18명의 광복군 출신들이 입교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권준·구자민·김영오·김영일·노복선·안춘생·이

준식·장호강·김동수·오광선·장홍·나태섭 등 12명은 특별반 형식으로 입교하였는데, 이들 또한 특별 입관 형식으로 국군 간부가 되었다.

이밖에 임관경로를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25전쟁 시기까지 국군에 투신한 광복군 출신은 40여 명으로 파악된다. 육군 장교로 투신한 이들이 김영관을 비롯하여 30여 명에 달하고, 해군에 투신한 이는 독립운동가 민제호의 아들로 광복군 총사령부 고급 참모 출신인 민영구 등이 있고, 공군으로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아들인 김신 등 3명이 참여한 것이다.

국군에서 한국광복군의 역할과 의의

광복군 출신자들은 국군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초대 국방부

장관 이범석은 국군이 법적인 지위와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국방조직을 정비하였다. 초대 국방부 차관 최용덕은 국군에서 공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데 공헌한 점이 주목된다.

광복군 출신들은 군사교육기관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각 군사관학교와 육군대학에서 군사간부 양성은 물론 보병학교·군의학교·훈련소 등에서 정병 육성과 국군의 민족 정통성을 고양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다.

광복군 출신들은 초창기 군사간부 육성기관인 사관학교에서 교장을 주로 맡았다. 조선경비사관학교가 육군사관학교로 개편되면서 광복군 출신들이 교장을 연이어 맡은 것이다. 광복군 총사령부 선전과장으로 활동한 최덕신이 6대,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장을 역임한 김홍일이 7대, 광복군 총사령부 고급 참모 출신 이준식이 8대, 광복군 제2지대 제1구대장과 난정잠편지대장을 역임한



陸軍大學

◎개인 소장

안춘생이 9대 교장으로 활약하며 국군 간부 육성에 헌신하였다.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초대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최용덕은 1950년 5월 제3대 공군사관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공군 간부 육성에 힘썼다. 해군 창설에는 독립운동가 민제호의 아들이자 임시정부 외무차장 민필호의 조카로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출신인 민영구, 그리고 임시의정원 의장 손정도의 아들인 손원일의 역할이 컸다. 손원일은 초대 해군참모총장으로 해군사관학교 교장을 겸임하면서, 민영구는 1959년 4월 제9대 교장에 부임하여 해군 간부 육성에 힘쓴 것이다.

광복군 출신들은 6·25전쟁에도 참전하여 분전하였다. 광복군 출신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인물은 1백여 명으로 파악된다. 계급별로는 장교 97명, 부사관 2명, 기타 1명이다. 군별로는 육군 96명, 해군 1명, 공군 3명이다. 이 가운데 임시정부 국무위원 김봉준의 사위이자 여자 광복군 김효숙·김정숙 자매의 남편인 송면수와 고시복 등 18명이 전사하고 3명이 사망하였으며,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납북되었다.

6·25전쟁에 참전한 광복군 출신의 활약상도 주목된다. 서울 함락 직후 김홍일은 시흥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후퇴하는 국군을 수습하여 한강 방어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중국군에서 익힌 전투경험을 살려 북한군의 한강도하작전을 일주일 동안 막아냈던 것이다. 이 같은 지연 작전으로 UN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었다.

이성가는 제8사단장으로 북한군에 맞서 강릉과 영천전투에

서 용전하였고, 김은석은 낙동강 방어전투에서 활약하였다. UN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 이후 국군의 북진 과정에서 백창섭은 평양 탈환전투에 참가하고, 박시창은 흥남 철수작전 당시에 제1군단 예민참모로 피난민 이송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렇지만 6·25전쟁 과정에서 이진국은 북한군의 남하작전에 맞서 황성전투, 김영남은 안동전투, 황하규는 영덕전투에서 전사하였고, 윤태현은 충북 단양에서 북한군에 맞서 싸우다 무단 철수하여 즉결 처분되기도 하였다. 중공군 개입 이후 후퇴 과정에서 김일환은 평남 덕천전투에서 전사하는 등 희생자도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광복군 출신들은 국군 창설과 정병 육성은 물론, 6·25전쟁에 참전하여 조국을 수호하는 데 앞장섰다. 민족독립과 조국광복을 위해 싸웠던 광복군의 독립정신이 광복 후 국가수호의 호국정신으로 발현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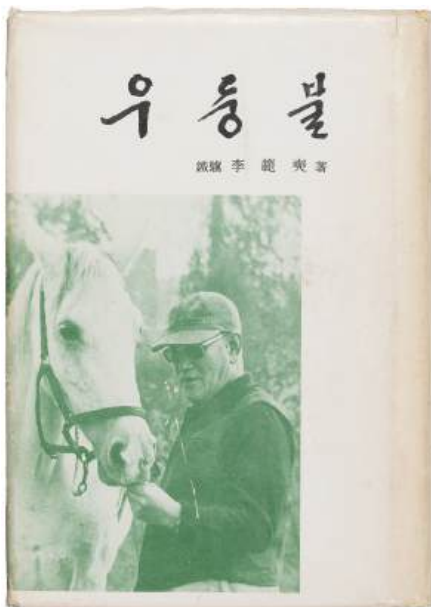


김홍일 공로패(1950년대)

국립현대미술관



이범석 회고록 『우등불』(1971)



이범석 회고록 『한국의 분노』(1946)

조국광복을 위해 목숨 바친 한국 독립군의 활약상을 보도한 『독립신문』 기사

— 글. 채영국(前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

한민족에게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조국이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이자 독립운동사상 가장 빛나는 승첩인 청산리 대첩이 있는 지 105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다. 1910년 경술국치를 전후한 시기부터 만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은 항일무장활동을 위한 철저한 준비기간을 가졌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 한민족에게 조국광복을 위한 의지가 확고해지자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독립군단을 조직했는데 그 수가 수십 개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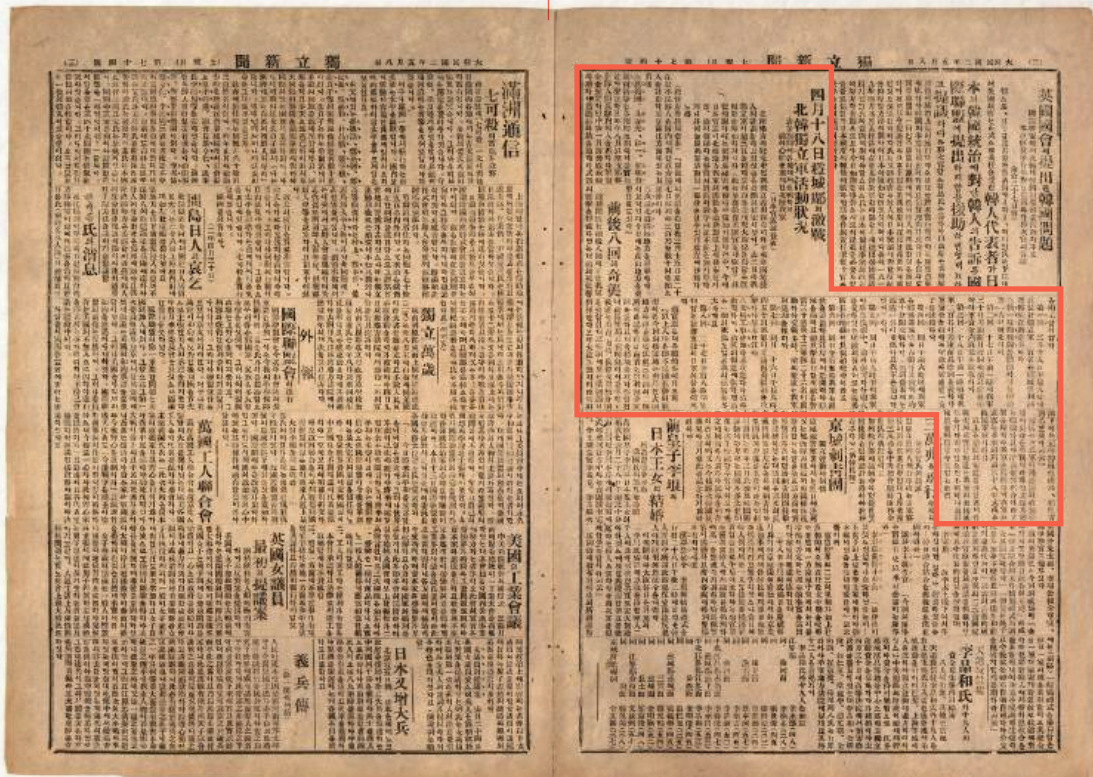
이들 만주의 독립군단들은 전투를 치를 만한 준비가 되는 즉시 국내로 독립군 유격대를 진격시켜 일제의 군경과 전투를 벌이거나 식민지 한국 강탈기관인 경찰주재소·헌병대·금융기관 등을 습격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한국 독립군의 활동상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기관지인 『독립신문』에 비교적 자세히 보도해 해방을 열망하는 한민족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였다.

1920년 5월 8일 자 기사(“4월 18일 온성군의 격전 북한독립군활동상황”)는 북간도 독립군 지휘관들의 동정과 1919년부터 1920년 사이 겨울에 이루어진 독립군의 국내 진입유격전을 보도하고 있다. 내용인즉 홍범도·구춘선·서일·최명록·양하청 등 독립군 지도자들이 1919년 8월 이후 압록·두만강 결빙기에 한국 내 진입전을 실행하기 위해 군자금을 모금하고 무기를 구입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이 준비한 후 1920년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2백 명 또는 수십 명으로 유격대를 조직해 8회에 달하는 무장활동을 펼쳤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3월 15일의 온성 풍리동 경찰 주재소 습격, 17일 미포면 월파동에서 군자금 모집, 18일 오전 1시경 미포면 장덕동에서 군자금을 모금하고 첩자 1명 총살, 같은 날 오전 6시경 온성군 성벽을 점령하고 일본군과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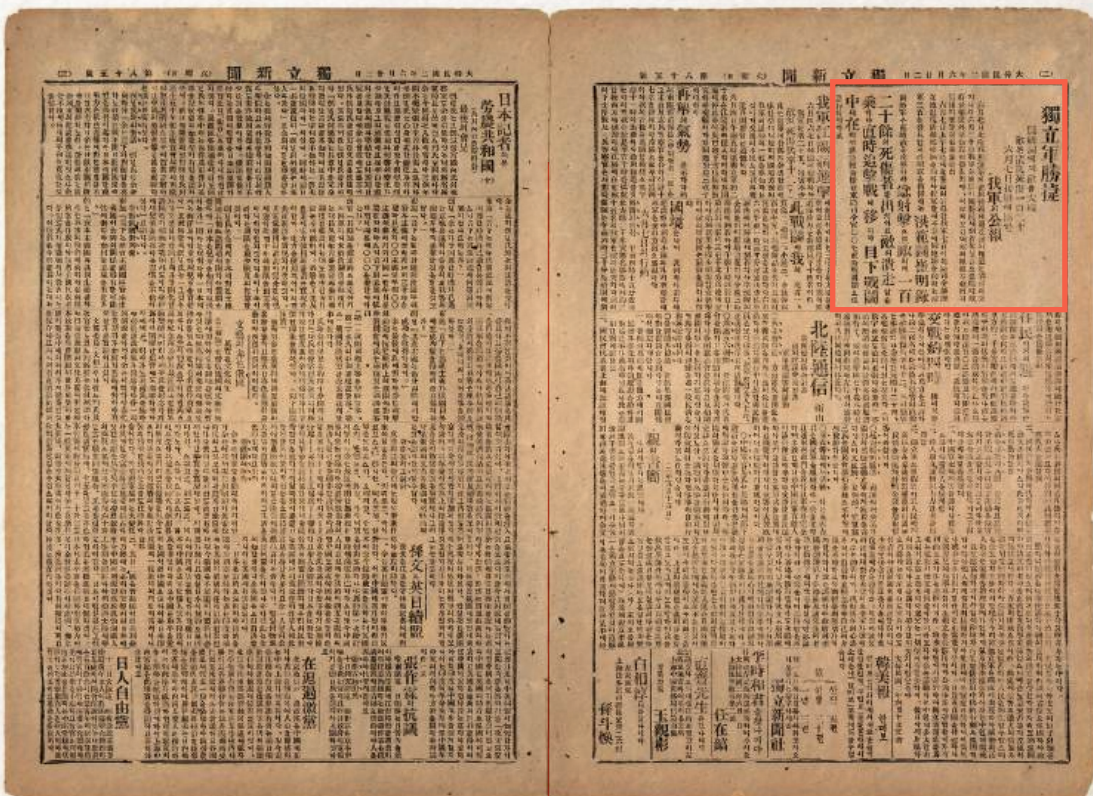
50분간 교전, 같은 날 오전 9시 반 정탐 중이던 일본 기마병과 독립군 교전, 같은 날 오후 5시 독립군 재차 온성을 향해 총공격을 단행해 일제의 경찰관 30명, 헌병 13명, 일본군 26명의 연합 병력과 교전함, 3월 26일 오후 9시 약 50명의 독립군이 유포면 남양동의 일본군 공격, 3월 27일 오후 8시 반에는 장소는 불명이지만 독립군이 일본군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이 같은 독립군의 국내진입 유격전은 1920년 중반으로 가면서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독립군의 공격에 의해 많은 일제의 침략기관이 파괴되고 일제의 군경대와 친일파들이 척결되었다. 이에 일제는 자신들을 공격한 후 만주의 본부로 귀대하는 독립군을 추격하기에 이르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삼둔자전투와 봉오동전투다.

그에 대한 기사는 1920년 6월 22일 자 『독립신문』에 “독립군 승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6월 4일 새벽 5시경 약 20명으로 구성된 독립군 유격대가 종성에서 북방으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강양동으로 진입하고자 행군하고 있었다. 이 행군 중이던 독립군 유격대는 도중에서 척후 활동을 벌이고 있던 일제의 헌병 순찰대를 만났다. 이에 독립군은 일 헌병대와 전투를 펼쳐 승리한 후, 다시 두만강을 넘어 만주의 삼둔자 부근 진영으로 돌아왔다. 독립군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일제 헌병대는 보복을 가하고자 일본군 중위 니이미新美가 지휘하는 국경수비대인 남양수비대 병력 1개 중대에 헌병중대를 합해 연합추격대를 조직해 두만강을 넘어왔다. 이들 일본군 추격대가 삼둔자의 한인마을까지 쳐들어 오는 것을 간파한 독립군들은 잠복 대기하고 기습 공격을 가해 또 다시 승리를 거두었다. 일제는 이 전투에서 독립군 한 명을 죽이고



『독립신문』 제74호(1920. 5. 8.)



『독립신문』 제85호(1920. 6. 22.)



『독립신문』 제88호(1920. 12. 25.)

두 명을 부상시켰으며 자신들은 사상자가 없다는 허위주장을 했다고 『독립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이는 일본군 측이 자신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은폐해 발표한 것이었다. 이 전투 이후 곧바로 더 많은 병력으로 전투부대를 편성해 니이미의 국경수비대를 지원해 온 것만 봐도 삼둔자에서의 전투는 독립군의 승리였음을 알 수 있다.

삼둔자전투의 패배를 보고 받은 일본군 상부는 야스카와 安川 소좌를 대장으로 한 ‘월강추격대’를 편성해 두만강을 넘게 했다. 월강추격대는 240여 명의 대대병력이었다. 여기에 삼둔자전투에서 살아남은 니이미 부대의 병력이 합쳐져 한국 독립군을 공격하기 위한 대규모 일본군 공격대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들 일본군이 대규모 병력으로 독립군의 근거지인 북간도로 침입해 오기 바로 직전 이 보도기사에는 게재되지 않았지만, 독립군도 각 독립군단을 합한 대규모 연합 군단을 형성

했다. 명칭은 ‘대한북로독군부’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안무가 이끈 국민회군 등이 연합한 대군단이었고, 왕청현 봉오동에 근거지를 만들고 주력부대를 주둔시켰다.

일본군 추격대는 이 독립군 대군단의 존재를 파악하고 봉오동을 공격 목표로 정했다. 봉오동은 사면이 야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샷갓을 뒤집어 놓은 모양의 지형이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는 입구에서부터 하동·중동·상동의 순서대로 한인마일이 형성되어 있었다. 독립군 사령부는 이들 한인마을의 주민들을 대피시켜 마을을 텅 비게 한 후, 독립군 병사들을 야산의 곳곳에 매복시켰다. 그리고 분대장 이화일이 인솔하는 독립군 병력을 봉오동 골짜기 입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배치해 일본군들을 유인하도록 했다. 독립군의 이 작전계획에 일본군은 완전히 걸려들었다.

6월 7일 새벽 3시 50분부터 이화일 분대의 유인에 따라 끌려오기 시작한 일본군 추격대는 5시경 봉오동 입구에 도착하기도 전

에 독립군의 1차 집중 공격을 받았다. 공격을 받아 크게 분노한 일본군은 날이 밝아진 오전 8시 30분경 봉오동 입구를 통과해 첫 번째 한인마을인 하동의 주민에게 퍼붓기 위해 가옥 곳곳을 수색했다. 그러나 마을은 텅 비어있었다. 이를 확인한 일본군은 독립군 무리를 찾기 위해 계속해 골짜기로 들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1시경 일본군 전위부대가 상동 마을 앞 골짜기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고 추격대 전체가 봉오동에 갇히는 형국이 되었다. 이에 홍범도 사령관의 공격 명령이 내려졌고 매복해있던 독립군들은 일제히 집중 사격을 가했다. 혼비백산한 일본군은 제대로 응전 한번 못하고 대패하고 말았다. 약 3시간에 걸친 이 전투에서 독립군은 150여 명의 일본군을 사살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봉오동전투는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다. 『독립신문』 한 회분의 한정된 지면이기에 독립군의 봉오동 승첩을 상세히 알리기는 어려웠으나 이 같은 보도는 일제 치하 곳곳에서 신음하는 한민족에게 조국이 기필코 독립할 수 있다는 큰 믿음을 주었다.

『독립신문』 1920년 12월 25일 자 ‘북간도에 재한 아독립군의 전투정보’는 앞에서 소개한 삼둔자전투, 봉오동전투와 함께 한국 독립운동사상 가장 빛나는 승첩이라 일컬어지는 청산리대첩에 대한 보도기사다.

청산리대첩은 서북간도에 근거지를 가진 여러 한국 독립군단들이 연합한 대규모 독립군 세력과 2개 사단 규모의 일본군이 대소 10여 회 전투를 치른 것으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맞붙은 전쟁이라 인식해 ‘청산리 독립전쟁’이라 명명한 연구자도 있다.

수시로 행해진 재만 독립군의 국내 진입 유격전, 그리고 독립군을 추격해서 이루어진 삼둔자·봉오동 전투 등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일제는 독립군을 섬멸시키지 않고서는 식민지 한국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일제는 1920년 8월 본격적으로 한국 독립군을 공격하기 위한 ‘간도지역불령선인초토계획’이라는 군사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서북간도의 독립군 근거지를 목표로 사방에서 군사를 동원해 공격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동쪽에서는 시베리아 파견 일본군, 북쪽에서는 북만주 파견 일본군, 서쪽에서는 관동군, 그리고 남쪽에서는 작전을 주도한 한국의 나남과 용산에 주둔한 일제의 조선군 제19, 20사단이 있었다. 침략에 동원된 일본군의 병력은 약 2만 명에 이르는 대병력이었다.

청산리대첩은 이들 일본군이 서북간도로 침입해 한국 독립군의 근거지와 그곳의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만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일본군은 1920년 10월 2일부터 한국 독립군을 공격하기 위해 서북간도 침입을 시작했다. 독립군 근거지를 향해 행군하는 과정에서 일본군들은 수많은 한인마을을 약탈·방화하고 조금이나마 반항하는 한인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

다. 그런데 일본군들이 만행을 자행하며 독립군을 쫓아오고 있을 때, 독립군들은 이들의 서북간도 침입을 사전에 감지하고 근거지를 떠나 백두산록 서쪽으로 이동 중이었다. 대한독립군·군무도독부·광복단·신민단 등 독립군단들이 일본군의 공격을 일시적으로 피하는 피전책(避戰策)을 택해 미리 백두산 쪽으로 병력을 이동시켰던 것이다. 단지 김좌진이 지휘하는 북로군정서만이 사관연성소의 제1회 졸업식 행사가 있어 그를 끝내고 다른 독립군단들보다 늦게 출발하였다.

그에 대한 기사가 본문 중에 “육군무관학교제1회 졸업식을 행하고…왕청현 대감자를 경하여 화룡현 삼도구 청산리에 도착 주군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먼저 출발한 대한독립군·군무도독부 등의 독립군 병사들이 화룡현 청산리에 주둔하고 있을 때 북로군정서 독립군들이 연성소의 졸업생들과 뒤늦게 청산리로 왔던 것이다.

독립군을 공격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한인 사회에 들어가 무고한 한인들만 희생시키고 있던 일본군들은 청산리에 독립군들이 집결해 있다는 첩보를 얻어냈다. 독립군의 소재를 파악한 즉시 일본군 침략군 중 육군 소장 아즈마 마사히코(東正彦)가 이끈 약 5천 명의 병력이 청산리로 향했다. 이 같은 일본군의 동정 또한 짧은 시간 내에 독립군에게 파악되었다. 아무리 일본군들이 일반 한인을 겁주고 탄압한다 한들 당하고만 있을 한민족이 아니었다. 일본군이 청산리로 향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가 그 동정을 독립군에게 알렸던 것이다.

일본군이 도착하기 전 독립군은 백전노장 홍범도를 총사령관으로 한 연합군을 편성하고, 신문기사에 보이듯 군사를 배치해 백운평·이도구·삼도구·완루구·북완루구·어랑촌·천수평 등에서 접전을 벌여 대승리를 거두었다. 기사에 나오지 않은 맹개골·만기구·쉬구·천보산·고동하곡 전투 등이 더 있었으며 이들 전투에서도 어느 정도 독립군의 손실이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승리하였다. 청산리대첩에서 독립군은 일본군 1,200여 명을 사살했으며, 독립군 측의 전사자는 130여 명이었다.

그 시기 최고의 무기를 사용하며 한국 독립군을 공격한 일본군을 이같이 응징했음을 『독립신문』은 온 천하에 알렸다. 봉오동과 청산리대첩은 한국 독립군이 1920년 6월과 10월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침략자 일제의 막강한 군대를 패퇴시킨 대첩이었다. 그것도 침략의 본토인 한국이 아닌 만주로 대병력을 불러들여 독립군의 의기와 힘을 보여준 전투였다. 이들 두 승첩은 만주의 한국 독립군이 광복이 되는 그날까지 불굴의 정신으로 항일 무장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신감과 힘의 원천이 되었다.

여성 한국광복군의 활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글. 김형묵((사)선인역사문화원 연구소장)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여성이 등장하다

국망國亡을 전후한 시기, 국채보상운동과 3·1운동에서 여성들은 학생은 물론 노파·주모·무녀까지 운동에 참여하며 민족해방운동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이들은 엄혹한 식민 지배에도 굴하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화를 위한 항쟁을 이끄는 에너지원이었다. 식민지 시기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은 이와 맞물려 진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국외에 거주하는 여성들도 예외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곤궁한 생활 속에서 자녀 양육은 물론 독립운동가 동지들의 생계까지 챙기는 등 헌신적인 활동을 벌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 요인의 부인들이 보여준 활약상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주목된다. 더욱이 군자금을 모금하거나 대적對敵 심리전에 앞장서는 한편 독립전쟁에 전사로서 직접 참여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여성들의 한국광복군이나 조선의용대에서의 활약은 대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다. 사선을 넘나드는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독립군 여전사로 거듭 태어났다. 그럼에도 일부 인물을 제외하고 이들은 역사 무대에서 사실상 잊힌 존재였다. 아니, 우리의 기억에서 철저하게 망각되거나 과편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일본군과 직접적인 전투와 선전활동을 통해 민족독립 쟁취에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웠다. 곧 항일무장투쟁만을 민족 모순을 극복하는 지름길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데 몸을 도사리지 않았다. 엄혹한 처지에도 비판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향한 힘찬 진군을 계속하여 나갔다. 이리하여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감격스러운 민족 해방을 쟁취하는 조그마한 주춧돌이 되었다. 해방 이후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거듭나는 본보기였다. 이들에게는 “부모나 자식보다 조국광복”이 우선적인 과제이자 실천적인 현안이었다. 인생 항로에서 보여준 숭고한 자세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새로운 예지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성 한국광복군의 투신 배경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거(일명 상하이 의거) 이후 “물 위를 떠도는” 상황에 직면했다. 1932년 상하이를 떠나 항저우 杭州 → 자싱 嘉興 → 진장 鎮江 → 난징 南京 → 광저우 廣州 → 구이린 桂林 → 치장 淞江 → 충칭 重慶까지 이르는 대장정에 돌입하였다. 일제의 무자비한 공습은 생명마저 위협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 다행히 중국국민당의 지원으로 근근이 생명줄을 부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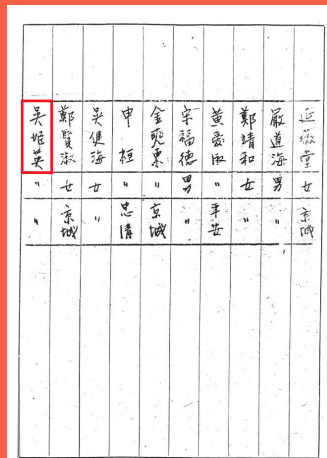




한국광복군 징모 제3분처 위원 환송 기념사진
(1941. 3. 6. 가운데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신정숙)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전례식 당시
답사하는 지청천



임시의정원 각 당파 명부에 있는 오희영
(1941. 3. 15.)

군사활동은 임시정부 수립 이래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변화무쌍한 국제정세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에 역부족이었다. 충칭에 안착한 임시정부는 외교활동과 더불어 군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설치를 결정했다. 마침내 1940년 9월 17일 자링빈관 嘉陵賓館에서 김구 주석의 주재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전례식을 거행하였다. 이틀 앞서 김구는 광복군 창설에 대한 취지를 밝힌 선언문을 대내외에 발표했다.

한편 군대편성은 총사령부를 조직한 후 단위부대를 편성하는 방식이었다. 일본군과 맞닿는 시안에 총사령부를 설치한 후 지대를 편성했다. 1942년 초에는 조선의용대 편입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구국간성'으로 거듭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선의용대는 제1지대, 이전의 제1·2·5지대는 제2지대로 편성했다. 광복 직전인 1945년 6월에는 징모 6분처가 제3지대로 발전하여 광복군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광복군은 700~800여 명에 달한다. 여성 광복군은 각 지대별로 30여 명이상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100여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광복군의 일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은 독립운동가 가정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광복군에 투신하였다. 김정숙·김효숙·민영주·신순호·오희영·조순옥·지복영 등이 대표적이다. 김정숙과 김효숙은 김봉준의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개방적인 사고로 “여자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자매는 임시정부 요인이나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민영주는 민필호와 신창희(다른 이름 신명호) 사이에 2남 4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항일정신과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국내와 중국 동북지역, 미주와 연해주 등지에 알리는 데 혼신을 다했

다. 어머니는 신규식의 외동딸로 임시정부와 운명을 같이 한 여성 독립운동가다. 민영주는 이러한 가정환경과 분위기로 일찍부터 항일의식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 충칭 방송국을 통한 심리작전 요원으로의 활동은 오늘날 여권신장을 이룬 조그마한 초석이 되었다.

신순호는 청주군 가덕면에서 아버지 신건식과 어머니 오건해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다. 신순호는 상하이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한 예관 신규식의 조카로 본관은 고령이다. 4살에 어머니와 함께 상하이로 망명하여 아버지와 처음 만났다. 집안 분위기와 주위 환경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독립운동과 마주하게 되었다. 청년공작대에 입대하여 한중 연대에 의한 항일운동에 나섰고, 광복군 창립 때 오광심·김정숙·조순옥과 함께 여성 독립군으로 참가했다. 이후 박영준을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훗날 박영준은 자서전에서 자신의 결혼식을 “나라 잃은 설움도 잠시 잊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기뻐하던 순간”이라고 회고하였다.

지복영은 지청천과 어머니 윤용자 사이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1924년 어머니를 따라 중국으로 가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26기생으로 졸업한 후 일본군으로 복무하다가 3·1운동 이후 만주로 망명하였다. 중국으로 망명한 지청천은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지복영은 청년공작대에 참여하면서 항일운동의 최전선에 나섰다. 청년공작대는 주로 한국인과 중국인들의 항일의식 고양을 위한 선전활동에 주력하였다. 중국인들에게 한국인의 항일정신과 기개를 선전하고 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공작이 중심이었다.

독립운동가 남편과 동지가 되어 광복군에 투신한 사례도 있다. 신정숙(다른 이름 신봉빈)과 오광심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신

정숙은 평북 의주군에서 태어나 1928년 충북 음성 출신인 장현근(다른 이름 송진표)과 결혼했다. 그는 망명한 남편을 찾아 상하이로 가서 극적으로 만났다. 윤봉길 의거로 안창호가 체포될 때 남편도 함께 체포되고 말았다. 행방불명된 남편을 위해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쫓아가다가 광복군에 투신하였다.

오광심은 출생하여 부모를 따라 남만주로 이주하여 정의부에서 설립한 화흥중학 부설 사범과를 졸업하였다. 한족회에서 설립한 배달학교와 류허현柳河縣 산위안푸三源浦의 동명중학 부설 여자초등학교에서 항일의식을 일깨우는 민족교육 시행에 노력했다. 이때 조선혁명군 참모장인 백과 김학규와 부부이자 영원한 동지로서 인연을 맺었다.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국 설립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항일세력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는 분위기였다. 당시 비장한 심정을 “님 찾아가는 길”에서 토로하였다. 이후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가 시안으로 이동하자 활동 근거지를 옮겼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제 경찰을 피해 중국으로 망명한 후 광복군에 합류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영실은 쉬저우徐州의 요리점인 회략관 종업원으로 살아가는 처지였다. 광복군은 지하활동 거점과 학병 탈출 루트로서 김영실을 활용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광복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스스로 나섰다. 김영실은 공적을 인정받았으나 이 외에 비밀공작원으로 활동한 임일옥과 이복순에 대한 존재는 희미하다.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를 악물고 군사훈련에 임한 정인덕도 마찬가지다. 특히 ‘사상기생’들도 운동에 투신하는 등 다양한 출신이 존재했다. 아쉬운 부분은 이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

이다. 광복군 출신 박영만이 소설 『광복군: 여명편』에서 가명으로 독립운동가 기생 나영옥을 기록한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 대원들이 한국광복군의 주력이다

여성 대원들의 활동은 크게 초모 활동, 선전활동, 구호활동으로 구분된다. 총사령부 성립전례식에는 오광심·김정숙·조순옥·지복영 등은 군복을 입고, 민영주·신순호는 사복을 입고 참석했다. 이들 6명은 바로 광복군 창설 요원이었다. 이들 중 오광심·지복영·조순옥 등은 시안에 파견되어 광복군 활동 기반 구축에 노력을 기울였다. 최전선인 이곳을 거점으로 초모활동과 선전활동을 줄기차게 전개했다.

초모활동을 위한 별도 기구인 징모분처徵募分處 5개소가 설치되었다. 회계조장 신정숙은 김문호 등과 함께 1941년 4월부터 간판을 내걸고 초모활동을 전개하였고, 짧은 기간에 약 20명을 모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중국군 제3전구에 수용되어 있는 일본군 포로들을 심문하여 적의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신정숙은 “국가지상, 민족지상, 유전출전有錢出錢, 유력출력有力出力” 등 대자보를 통해 선전활동에 몰두했다.



김정숙(1916~2012)

©독립기념관



한국광복군 기관지 『광복』

©독립기념관

이들은 초모활동과 더불어 선전활동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들은 광복군이 창설된 사실과 활동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동시에 국내외 동포들의 참여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선전과는 대부분 여성 대원들로 구성되었는데, 오광심·지복영·조순옥 등이 임무를 맡았다. 선전활동은 목적과 대상이 매우 다양했다. 대상은 일본군 점령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일본군에 있는 한인 사병 등이었다. 일본군의 사기를 저하하는 선전활동도 병행되었다. 선전은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등으로 된 전단과 벽보를 만들어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선전활동의 주력 사업 가운데 하나는 기관지 발간이었다. 시안으로 이동한 직후부터 『광복光復』이 발행되기 시작했다. 기관지는 한국어본과 중국어본 두 종류를 발간하였다. 한국어본은 국내외 동포 중 적 후방에 거주하는 한인을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중국어본은 행정·군사·언론 기관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여성 대원들은 원고 의뢰와 작성·번역, 발송하는 일을 맡았다. 이들은 직접 자신의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광심은 “한국 여성 동지들에게 일언一言을 들림”, 지복영은 “대시대는 왔다, 한국여성동지들이 활약하자”를 통하여 여성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오광심은 국내외 각지에서 조국광복과 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분투하는 여성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반문하며 여성들의 활약을 요구했다.

방송을 통한 선전활동에도 여성 대원의 활약은 두드러지고 섬세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총사령부는 심리작전연구실을 설치하여 대적 심리 활동을 전개했다. 충청의 국제 방송국에서 김정숙은 원고를 작성했고 신순호·지복영·민영주 등은 낭랑한 어조

로 방송했다. 이와 더불어 연극공연과 음악회도 병행했다.

여성 대원은 구호활동과 더불어 세탁·재봉·요리 등을 담당했다. 또한 이들은 군사훈련과 더불어 초모공작을 위한 각종 정훈 교육을 받았다. 군내 기밀에 대한 보안유지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한국광복군 내 여성대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여성 대원들의 삶과 애환이 보다 생생하게 재현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자료의 발굴·정리와 더불어 공개된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이들을 우리의 기억 속으로 호출하고 정당하게 자리매김 시키기 위하여 서둘러야 할 것이다.

④ 독립기념관



한국혁명여성동맹 창립 기념사진
(중국 치장, 1940. 6. 17.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김정숙)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배지

— 글. 이홍구(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사)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배지 앞뒷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배지 앞뒷면



광복군 배지류

©국립기념관



광복군 배지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담당을 맡고 있던 2023년 6월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배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아직 그 실체가 알려지지 않은 배지 실물을 보기 위해 바로 만나자고 하였다. 소장자는 흔쾌히 보여주겠노라며, 기념관으로 배지를 가지고 왔다.

배지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

원형으로 된 배지에는 바깥쪽에 파란색으로 한국청년전지공작대 韓國靑年戰地工作隊라는 한자와 함께 ‘한국’과 숫자 ‘100’이 새겨져 있다. 가운데에는 태극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건곤감리가 태극을 감싸고 있다. 뒷면에는 옷핀이 달려 있을법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한 배지는 지금까지 다섯 가지 종류가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배지이고, 나머지 네 종류는 한국광복군에서 사용하던 배지 3종과 모표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배지가 발견되면서 그 수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일단 크기를 비교하자면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배지의 지름은 29.4mm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배지와 한국광복군 배지류의 지름은 23~24mm로서 약 5mm 정도 더 크다.

뒷면을 살펴보면, 모두 옷핀 형태로 군복에 착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배지에는 별도의 각인이 없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배지는 상단 테두리에 ‘大韓民國臨時政府’, 하단 테두리에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각인한 해와 함께 일련번호로 추정되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독립기념관
광복군 제5지대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1939. 4. 4.)



◎독립기념관
광복군 제5지대

조선의용대 성립 1주년 사진(1939. 10. 10.)



◎독립기념관
광복군 제5지대

한국청년전지공작대가 시안으로 떠나기 전 사진
(1939. 11. 17.)



◎독립기념관
광복군 제5지대

한국청년전지공작대 성립 1주년 사진(1940. 11. 11.)



◎독립기념관
광복군 제5지대

광복군 제5지대 성립 기념사진(1941. 1. 1.)

배지를 어디에 달았을까

현재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부대 마크는 직물류 형태로 왼팔 어깨 부분에 부착한다. 하지만 한국광복군을 비롯한 당시 군복을 착용한 사진을 보면 배지 형태로 왼쪽 가슴에 붙이고 있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 사진은 두 장 정도가 남아 있다. 두 사진에 보이는 배지 착용 위치를 보면 앞에서 언급한 다른 배지와 같이 왼쪽 가슴 주머니 위에 부착하고 있다.

이렇게 왼쪽 가슴 부분에 배지를 달았던 데에는 중국 국민정부 군복 복제服制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광복군 등 임시정부 계열 복식을 주로 연구한 김정민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광복군의 복식 구성의 대강을 중국 국민정부의 군복 제도를 정립한 「육군복제조례(陸軍服制條例)」와 유사성에서 찾고 있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의 복식 역시 한국광복군이나 조선의용대의 복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중국 국민정부 군대의 복식을 따랐을 것이고, 배지의 착용 위치도 같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

한국청년전지공작대는 1939년 11월 중국 충칭重慶에서 결성한 항일 무장 조직이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중국 관내에서는 다양한 한인 무장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중국 국민정부와의 연대를 통해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치를 목적이었다. 1938년 11월 우한武漢에서 조선민족혁명당 계열의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고, 1939년 2월 류저우柳州에서 한국국민당과 재건한국독립당 등 광복진선 계열의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충칭에서 한국청년전지공작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공작대의 구성원은 크게 두 부류였다. 나월환과 이하유, 박기성 등 충칭에 모여든 아나키즘 계열과 김인, 조시제, 김동수, 김원영 등 류저우 광복진선청년공작대 출신 세력이 그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1930년대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등 중국 군사학교에서 훈련받은 경험이 있었다. 나월환이 공작대장을 맡았고, 김동수가 부대장을 맡았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는 창설 결성 직후인 1939년 12월 시안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후중난胡宗南이 이끄는 중국군 제34집단군과 연계하여 활동하면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거나 초모공작,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본군 점령지역에 있던 한인들을 모집하여 중국 제34집단군 내에 개설된 한국청년훈련반(한청반)에 배속시켰다.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고 공작대원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한국청년』이란 기관지를 중국어로 발간하고, 여러 연극 공연을 통해 중국인들과의 연대를 위해 힘을 쏟았다. 대표적인 공연이 한유한이 제작했던 '아리랑'이었다.

시안에서 중국과의 항일 연대 활동을 꾸준히 벌였던 한국청년전지공작대는 1941년 1월 1일 신년 단배식이 끝난 후 한국광복군 제5지대 편입을 선언하면서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합류 이후에도 공작대 시절 조직 체계가 그대로 운영되면서 초모, 선전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문학을 구심점으로 독립운동의 불꽃을 피운 나라, 폴란드

— 글: 최성은(한국외국어대학교 폴란드학과 교수, 번역가)

폴란드는 러시아와 독일 사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외침外侵을 겪으면서도 민족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곳곳이 수호했다는 점에서 한국과 닮은 구석이 참 많은 나라다. 18세기 말 폴란드는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의 침략으로 123년 동안 국권을 상실하는 비운을 겪었다. 하지만 외세의 억압 속에서도 문학의 본령을 수호하기 위해 분투한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폴란드인들의 열망이 더해지면서 역설적으로 민족의 수난기에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풍부한 문학적 토양이 다져졌다. 그리고 다섯 명이나 되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¹를 배출한 ‘문학 강국’으로 거듭났다. 스웨덴 한림원은 2019년 올가 토카르추크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폴란드 문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극찬했다.

“폴란드 문학은 유럽에서 독보적으로 빛나고 있다. …유럽의 교차로인 폴란드는 나아가 유럽의 심장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와 닮은꼴 역사를 가진 폴란드에서 문학이 예술적 가치를 넘어 민족의 저항 정신을 고취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암흑기에 독립의 희망을 일깨운 대표적인 폴란드 작가와 작품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1795년 삼국 분할로 유럽 지도에서 사라진 폴란드

폴란드는 18세기 후반 세 차례(1772년, 1793년, 1795년)에 걸친

삼국 분할로 유럽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 흑해에서 발트해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며 승승장구하던 폴란드가 이러한 비운을 겪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했다. 17세기에 귀족들이 선거로 왕을 선출하는 ‘귀족 공화국’ 시대가 도래하며 정치적 혼란기가 지속되었고, 농노제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쇠퇴와 사회적 분열이 가속화되었지만, 왕권의 약화로 중앙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 스웨덴과 오스만 제국, 코사크 족이 연이어 폴란드를 침략하면서 국토가 유린되고 국력이 쇠퇴했다. 게다가 군사 개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주변 열강에 비해 국방력이 약해진 상태였다. 이러한 틈을 타서 폴란드를 속국으로 삼으려는 러시아, 발트해로의 연결 통로를 원했던 프로이센, 갈리치아 지역(지금의 서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남부)을 확보하고자 했던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침략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러한 수난의 시기에 폴란드 문학이 놀라운 도약을 이루어 냈다는 점이다. 당대에 유행하던 낭만주의와 실증주의 문학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며, 폴란드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더불어 독립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낭만주의 문학과 두 차례에 걸친 민족 봉기

19세기 전반기에 애국적 각성과 독립 의지 고취를 위한 선봉에 나선 것은 낭만주의 시인들이었다. 폴란드 문학사에서 ‘3대 민족시인’으로 일컬어지는 아담 미츠키에비츠 Adam Mickiewicz, 1798~1855, 율리우쉬 스워바츠키 Juliusz Słowacki, 1809~1849, 지그문트 크라신스키 Zygmunt Krasiński, 1812~1859는 고난과 희생을 통해 조국이 찬란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들은 폴란드 민족이 겪고 있는 외

¹ 폴란드 출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는 헨릭 시엔키에비츠¹⁹⁰⁵, 브와디스와프 레이몬트¹⁹²⁴, 제스واف 미워쉬¹⁹⁸⁰, 비스와바 씬보르스카¹⁹⁹⁶ 그리고 올가 토카르추크²⁰¹⁸가 있다.



폴란드의 옛 수도 크라쿠프 구시가지 광장에 위치한 아담 미츠키에비츠 동상



11월 봉기(보이치에흐 코사크 Wojciech Kossak)
(울선카 그로호프스카 전투)



파리에서 출간된 아담 미츠키에비츠의 『판 타데우스』 초판본

세 점령의 고통을 예수의 수난에 비유하면서 폴란드 민족에게 ‘메시아적 소명 의식’을 복돋웠고, 독립을 위한 투쟁을 신성한 사명으로 묘사하여 실의에 빠진 폴란드인들을 위로했다. 이때부터 폴란드에서는 문인들이 ‘민족의 사표’로 각별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폴란드 문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미츠키에비츠는 극시 『조상제 Dziady』(1832)에서 폴란드의 투쟁을 영웅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독립을 향한 열망에 불을 지폈다.

“폴란드여! 폴란드여! 나는 그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리라.

폴란드의 깃발 아래에서 자유가 다시 태어나고,
수난당하는 민족들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폴란드의 희생이 중국에는 자유의 쟁취로 이어지리라는 낭만적 신념은 스위바츠키에게서도 발견된다. 서사시 『코르디안 Kordian』(1834)에서 스위바츠키는 폴란드가 세계 평화를 위해 희생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폴란드는 세계의 빈켈리트²다!

폴란드는 희생할 것이며, 그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자유를 얻으리라!”

크라신스키는 단테의 『신곡』을 패러디한 서사시 『비非신곡 Nie-Boska Komedia』(1835)에서 폴란드의 미래를 탐구하며,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는 한, 민족은 반드시 생존한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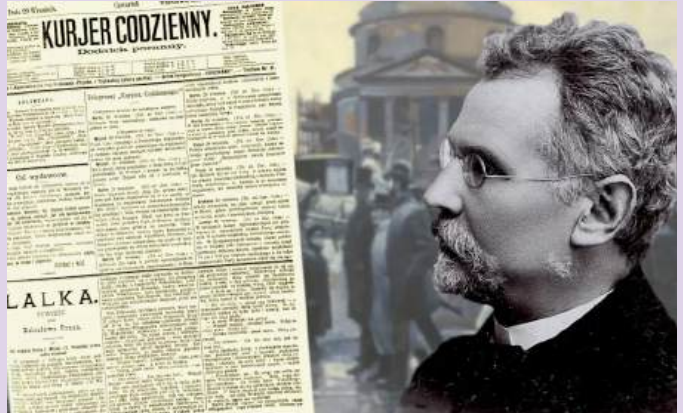
“자식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살아 있는 민족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이처럼 낭만주의 시인들의 주도로 저항 의식이 고취되면서 폴란드인들은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1830년에 일어난 11월 봉기는 폴란드의 장교와 사관학교 생도들, 그리고 시민 자원대가 러시아에 항거하여 일으킨 무장 독립 항쟁이었다. 하지만 1831

2. 겐파호 전투1386에서 부르고뉴 공국의 침략을 막아낸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 적군의 창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동료들이 방어선을 뚫고 진격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승리를 이끌어냄.



1월 봉기에 참여했던 폴란드 민병대



신문에 연재되었던 『인형』 첫 회, 볼레스와프 프루스

년 러시아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되면서 수많은 정치인과 예술가들이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다. 이들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지로 흩어져 외교적으로 폴란드의 독립을 호소했다. 아담 미츠키에비츠와 올리우쉬 스위바츠키도 프랑스로 망명을 떠나 타국에서 집필활동을 이어갔다. 망명 작가들은 폴란드 봉기군을 '십자가를 짊어진 희생자'로 묘사하며 국제적인 공감과 지지를 호소했다.

미츠키에비츠가 파리에서 쓴 서사시 『판 타데우시 Pan Tadeusz』(1834)는 폴란드인들에게는 성서와도 같은 작품으로 모든 가정마다 한 권씩은 소장하고 있다고 알려진 걸작이다. 작가가 어린 시절에 기억하던 폴란드의 전통과 자연을 아름답게 묘사한 이 작품 덕분에 폴란드인들은 암흑기에도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11월 봉기가 실패로 끝난 뒤 러시아는 폴란드의 자치권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폴란드 군대를 해산하고 러시아어 사용을 강요하는 등 문화 탄압을 자행했다. 하지만 작가들이 나서서 문학을 구심점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독립을 향한 폴란드인들의 열망은 더욱 견고해졌다.

1863년 러시아가 강제 징병을 단행하자 지하 혁명 정부가 시민들을 규합하여 폴란드 민병대를 조직, 또다시 대규모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전면전을 펼쳤던 11월 봉기 때와는 달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러시아군을 기습하는 게릴라 전투를 벌였다.

봉기군은 러시아 군대와 무려 천 번 이상의 소규모 전투나 접전을 벌였고, 많은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군사력의 열세는 극복하기 힘들었다. 봉기군의 숫자가 3만여 명인 반면, 폴란드 영토에 주둔하던 러시아군은 열 배도 넘는 40만 명이나 되었다. 봉기군

수만 명이 목숨을 잃으며 저항했지만, 결국 1864년 8월, 지하 정부가 색출되면서 봉기는 실패로 끝났다. 그 결과 러시아는 폴란드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다. 폴란드어 사용이 아예 금지되고 러시아식 교육이 강요되었으며, 폴란드의 귀족들은 대거 체포되거나 시베리아로 유배되었다.

실증주의 문학과 사회 개혁, 그리고 국가 재건

두 차례에 걸친 무장봉기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폴란드 문학 또한 낭만적 이상주의에서 현실에 바탕을 둔 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19세기 후반기에 활동한 실증주의 작가들은 무력 항쟁이나 영웅적 희생보다는 계몽과 교육, 법과 제도의 개혁, 군사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 독립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또한 실패한 봉기를 감상적으로 미화하려는 자세를 지양하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과 실용적인 독립운동 전략을 고민했다.

근대 소설의 기틀이 마련된 이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작가로는 1905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헨릭 시엔키에비츠 Henryk Sienkiewicz, 1841~1910를 들 수 있다. 그는 낭만주의의 애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을 면밀히 연구하여 사실주의적 방식으로 재해석한 작가였다.

시엔키에비츠는 『불과 검으로 Ogniem i mieczem』(1884)와 같은 역사소설을 통해 폴란드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재조명함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웠다. 작품 속 대사인 “우리가 살아있는 한, 폴란드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문장은 폴란드 국가國歌의 탄생에 영감을 주었고 가사의 첫마디로 삼입되었다.

볼레스와프 프루스 Bolesław Prus, 1847~1912는 대표작 『인형



실증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헨릭 시엔키에비츠



마리아 코노프니츠카

Lalka』(1890)에서 19세기 말 산업화 대열에 동참한 폴란드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며 귀족 사회의 부패와 무능을 비판하는 한편,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과 교육 기회의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자유는 꿈꾸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매일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며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여성 문학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엘리자 오제슈코바 Eliza Orzeszkowa, 1812~1859 는 소설 『니에멘 강변에서 Nad Niemnem』(1888)에서 농민의 애환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조명하며, 사회 개혁과 계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지속적인 노동과 헌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은 외침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노동에서 태어난다.”

마리아 코노프니츠카 Maria Konopnicka, 1842~1910는 독립운동의 낭만적 이상을 계승하면서도,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현실적 사안들을 깊이 탐구한 작가였다.

프로이센이 폴란드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저항하는 의미로 그녀가 집필한 시「로타Rota」(1908)는 민중들에 의해 노래로 불리며, 폴란드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폴란드 여성과 농민들에게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에도 기여했다.

우리는 결코 노예가 되지 않으리!
우리는 조상의 땅을 버리지 않으리,
우리의 언어를 빼앗기지 않으리.
우리는 폴란드 민족, 폴란드 민중,
왕의 피를 이어받은 피아스트 가문의 후손이니.

우리를 적이 억압하게 두지 않으리!
신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독일인이 우리 얼굴에 침 뱉게 하지 않으리,
우리 아이들이 독일화되게 두지 않으리.
우리의 군대는 무장하여 일어서고
우리의 정신이 우리를 이끌 테니.

황금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나아가리라!
신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19세기 후반, 실증주의 문학은 폴란드인들에게 언어와 역사,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독립을 이루려면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덕분에 폴란드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널리 확산되었고, 이는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면서 폴란드가 123년 만에 독립을 되찾고 제2공화국 정부를 출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실증주의 문인들은 문학이 국민을 계몽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신념을 피력하며, 사회 개혁과 정치적 변화를 촉구했다. 덕분에 노동자와 농민들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

문학의 열정으로 태어난 독립운동의 불꽃

폴란드인들에게 문학은 독립 투쟁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자 도구였다. 낭만주의 문학이 혁명적 열정을 불태웠다면, 실증주의 문학은 폴란드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유도했다. 독립을 향한 불꽃을 지핀 낭만주의, 그리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실증주의, 두 문학 사조는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에 이바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폴란드의 독립운동에 필요한 감성과 이성의 토대를 구축했다. 또한 그리스와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유럽 각지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체코나 핀란드 등의 민족주의 사상에도 문학적 영감을 제공했다.

특집 : 광복 80주년 기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5년 상반기 특별전시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

— 글. 이현희(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사)



특별전시실 입구

들어가며

지난 3월 1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일곱 번째 특별전시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한국광복군에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이어지는 100여 명의 활동을 주제로 합니다. 대한제국 군대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지만 의병을 거쳐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광복군의 주요 인물들은 국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국가란 무엇인지, 또 국가를 수호하는 군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떠올려 봅니다.

1부. 대한제국군의 후예, 역사를 잇다



‘군주의 나라’였던 대한제국은 ‘국민의 나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지키던 군대와 군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은 의병으로 활동하다 중국 만주와 러시아 극동으로 망명하여 독립군 주축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했습니다. 이들은 1920년 독립전쟁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봉오동·청산리전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 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군무부 포고로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독립문을 가로질러 독립군이 서울로 입성하는 그림의 대한민력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벽에 붙어 있는 유물과 유물장을 통해 한국광복군과 국군에 참여한 여러 인물의 면모를 알 수 있게 구성되어 있

습니다. 1부에서는 특히 초창기 한국광복군과 국군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유동열은 대한제국군에서부터 시작해 한국광복군으로 그리고 광복 후 미군정 시기의 국방부장관인 통위부장을 맡았습니다. 그 외에도 조성환·황학수·지청천 등도 주목할 만합니다.

2부. 독립군의 전통을 한국광복군에 잇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대일 항전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1940년, 한국광복군 설립 이후 특히 학도병 출신으로 탈출해 자원입대한 광복군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는 그 이전에 이미 많은 한국 청년들이 중국의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국의 군사학교 안에 한국인 초급장교를 길러내기 위한 특별반도 설치되었음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왕중량’이라는 중국 이름으로 활동했던 나태섭 지사의 필업 졸업증서와 임관장은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듬해 보병 소위로 임관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중앙육군군관학교의 졸업기념 단도와 배지, 메달도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구부 사진에는 가슴에 군교, 즉 중앙육군군관학교의 약자를 딴 유니폼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아랫줄에 모자를 쓴 사람이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지낸 백암 박은식 선생의 아들 박시창 지사입니다. 한편 형제가 같이 중국 군관학교를 졸업한 이윤철·이윤장 지사 사진도 이채롭습니다. 형은 육군군관학교, 동생은 공군군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당시 군관학교에서 가르치던 교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장에서도 여러 유물을 볼 수 있는데 그중 나태섭 지사의 군번 도장이 있습니다. 군번 11634가 찍혀있는 도장이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박시창 부부사진이나 건국공로훈장 단장, 지금의 독립장을 수여받는 사진과 메달도 뚜렷이 남아 있고요. 안춘생 지사는 광복 후 사단장 등을 거쳐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하는데, 그 발령통지서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지사는 중국군과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국군으로 활동한 사진이 모두 남아 있는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김관오 지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위대장 증서와 충청시에 거주했다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고, 박기성 지사가 능률하게 백마를 탄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선청년공작대나 한국청년전지공작대, 군사특파단 등을 조직해 한국광복군 설치를 준비하였고, 그 결과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성립되었습니다. 당시의 보고서와 성립전례식 감상문과 방명록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한국광복군과 관련된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광복군 배지와 안춘생 지사가 남긴 친필 원고, 『한국광복군소사』 등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한국광복군 시절의 김영일 지사 사진은 당시의 복식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끌려간 학도병들과 중국에 있던 한국인들은 광복군이 있는 곳으로 탈출해 스스로 입대하였는데, 여기 최덕휴 지사의 그림과 여러 회고록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도 한청반(한국청년훈련반)과 한광반(한국광복군훈련반)에서 훈련받으며 대일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조국으로 가는 길을 준비했던 한국광복군은 인면전구공작대 파견과 OSS와의 합동작전인 독수리작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과 독일에 차례로 선전포고를 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인면전구공작대와 독수리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인면전구공작대는 인도·미얀마(버마)에서 영국군과 함께 활약한 한국광복군들이며, 독수리작전은 미국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한반도로 진입하려고 했던 국내 진입작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인상적인 유물은 독수리작전 당시 대위였던 웜스 씨를 25년이 지난 1969년, 독수리작전에 참여했던 한국광복군 동료들이 환영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당시 한국광복군들이 독수리작전을 통해 미국과의 항일전선에 앞장섰음을 기억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3부.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되다

광복을 맞이한 한반도에서는 정식 정부 수립을 위한 여러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국방분야에서는 1946년 1월 남조선국방경비대(조선경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조선경비대를 지휘·감독할 통위부가 만들어졌고, 통위부장으로 한국광복군 참모총장이었던 유동열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광복군 대

원들은 조선경비대에 참여했고, 2년 후인 1948년 8월 국방부가 만들어지자 이들은 국방부의 주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통위부 시절의 육군사관학교 문서들과 조선경비대군가집, 그리고 통위부장이었던 유동열과 조선경비대 사령관 송호성이 보낸 초청장 등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의 전신인 해방병단과 조선해안경비대 시절의 신분증과 장교 임명장도 있는데, 이를 통해 1948년 정부 수립 이전의 여러 활동을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에 따라 국방부가 만들어진 이후의 임명장도 주목됩니다. 국방부장관 이범석 명의로 수여된 임명장은 이제 우리의 국방을 우리가 맡아서 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육군의 설립과 그 활동에 관한 전시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진열하고 있는 보병제1연대와 육군제1기갑연대 깃발은 광복군 출신 인물들이 참여했던 부대의 깃발입니다. 그중 권준 장군의 경우, 수도사단, 지금의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의 초대 사단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권 장군의 맹호부대 전장과 논문, 망원경과 지휘봉 그리고 보온기구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서 살펴봤던 안춘생 지사의 경우 8사단장 재직 당시의 노트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어 여러 지사의 명패와 지휘봉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육군대학과 육군사관학교 앨범, 종합학교 및 고급장교반 사진도 있습니다. 한국광복군 출신 국군들은 후배 양성을 위해 각종 학교에서 광복군의 정신을 한국군에 계승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개인 유물 중에서는 장호강 장군이 받은 40개의 라이터가 이색적입니다. 장 장군은 시인이기도 하였는데, 여기에서 그 시 중 하나인 백마고지의 일부를 소개해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무중 지사의 추도식 행사 관련 사진과 공적서도 눈길을 끄니다. 공적서에서는 이무중 지사에 대해 “광복 전에는 독립군으로 활동하고, 광복 후에는 국군에 투신해 향년 27살, 대령으로 장엄하게 전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이번 전시를 통해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해군과 공군을 살펴보면, 해군에서는 민영구 제독이 가장 대표적인 광복군 출신 인물입니다. 민영구 제독은 제8대 해군사관학교 교장을 맡기도 했는데, 이범석 장관이 쓴 해군사관학교 휘호가 있습니다. 또한 해군사관학교 확대편성 문서와 해군 대학 졸업증서 등도 창군 당시 해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군에서는 먼저 초창기 공군기인 제106기지단기와 함께 김정렬 공군참모총장이 집필한 국영문 3개년 계획안이 의미있는 자료입니다. 광복군 출신의 공군으로는 최용덕 장군이 대표적인데, 최 장군의 초상화와 명패 그리고 공군본



3부 전시실

부에서 집필한 최용덕 장군의 일대기도 흥미롭습니다. 또한 김신 장군이 찍거나 찍힌 공군의 여러 사진들도 초기 공군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음으로는 공군사관학교와 관련된 유물들입니다. 교기와 졸업증서, 임관사령장이 있고, 이외에도 공사의 배지와 모표가 있습니다. 한편 이윤철 지사도 공군에서 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지사가 중국 공군에서 활동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진자료도 남아있는데 그중에서는 통신담당으로서 직접 설치했던 제주기지의 컨트롤 타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역 후의 활동이 흥미로운 분들에 대해서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김홍일 장군은 중국군과 한국광복군, 국군에서의 활약도 대단하지만 그 이후의 삶도 정치인으로서, 또한 외교관으로서 다양한 면모를 보이신 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김 장군의 전역 후 대만 대사로로서의 활약을 보여주는 연미복과 지팡이, 구두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에 인권변호사가 되는 태운기 지사가 조소앙 선생에게 보낸 편지, 또 군인이면서 전남 지사를 역임했던 김용관 장군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치하한 편지 등도 눈길을 끄니다. 한편 자료로서는 박종길 지사의 유물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박종길 지사는 전역 후 세 번에 걸쳐 민의원, 즉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당선증과 명함을 세트 구성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복군 화가로 이름 높은 최덕휴 지사의 그림도 있습니다. 또한 전역 후 서울시 부시장, 주일본공사를 지낸 전재덕 지사의 <전국 지방장관 회의 사진>도 특이하며, 마지막으로 두 번의 보건사회부 장관, 초대 노동청장을 지낸 정희섭 지사가 보사부장관 명의로 발행한 약사증명서로 3부의 구성을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무기와 군복의 변천을 통해 전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군은 대한제국 시기부터 서구와 중국, 일



군복으로 보는 우리군의 역사

본으로부터 들어온 다양한 총기류를 사용하였습니다. 때로는 구입하였고, 때로는 전투에서 노획하였으며, 때로는 중국과 미국 같은 연합군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군은 우리가 만든 무기로 무장해 철통같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군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제복 가운데 군복은 오랜 전통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개항 이후 근대 한국에서도 군복은 가장 신식의 의복인 동시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불꽃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군대 해산 후에도 독립군들은 군복을 맞춰 입고자 노력하였고, 그러한 노력 끝에 한국광복군은 정식의 군복을 갖추어 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 되어 육군과 해군, 공군은 각기 나름의 군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나오며

2025년 3월 현재, 한국광복군에 참여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 가운데 모두 579명이 서훈을 받았습니다. 그중 100여 명이 해방 후 국군에 참여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전시를 통해 광복군에서 국군으로 이어지는 역사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국군 장병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집 : 삼일절 계기 체험프로그램

〈기억해요! 그날의 함성: 대한독립만세〉

임정기념관의 삼일절
계기교육에 참여했어요!

— 글. 이주연(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사)

기념관에서는 광복 80주년 및 삼일절 106회를 맞이해 3월 1일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삼일절 계기 체험 프로그램 〈기억해요! 그날의 함성: 대한독립만세〉를 운영하였으며, 이번 교육프로그램에는 초·중등학생 및 일반국민 총 2,8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억해요! 그날의 함성 : 대한독립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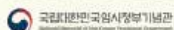


일시 2025. 3. 1.(토)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장소 지하1층 의정원홀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체험 프로그램

- ① **대한** 도전! 임정 퀴즈/퍼즐 박사 활동지 2종
- ② **독립** 독립운동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무궁화 손 편지 쓰기
- ③ **만세** 광복80주년 축하 및 감사 편지 내용을 담은 영상 이벤트



기억해요! 그날의 함성 : 대한독립만세!



일시 | 2025. 3. 1.(토)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장소 | 지하1층 의정원홀

대상 | 누구나 참여 가능

대한

- '도전! 임정 퀴즈 박사' or '도전! 임정 퍼즐 박사' 책1 (2종 모두 선택 가능)
- 2층부터 4층까지 상설전시실을 관람하여 빈칸 채우기
- 활동지는 선착순으로 제공

독립

- 독립운동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무궁화 손 편지 쓰기
- 작성한 편지를 의정원홀 벽에 붙이고 사진 촬영, SNS게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삼일절 #독립운동가감사편지쓰기
- 활동지와 편지쓰기 활동을 완료한 815명에게 맛있는 과자 상자와 멋진 배지 증정

만세

- 광복80주년 축하 및 삼일절에 독립운동가에게 전하는 감사 편지 내용을 담은 영상 이벤트
(감사 편지 쓰기 참여자 815명 대상)
- 영상 이벤트 참여자 80명을 선정하여 스타벅스 상품권 (1만원권) 증정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National Memorial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도전! 임정 퀴즈박사 활동지



[대한] 상설전시실 연계 '도전! 임정 퀴즈/퍼즐 박사' 활동지 2종 체험 사진



도전! 임정 퍼즐박사 활동지

이번 삼일절 계기 체험프로그램에서는 모두 3종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 임정 퀴즈/퍼즐박사> 활동지 2종으로, 상설전시실 2~4층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전시물을 직접 관찰하면서 초성으로 정답 맞추기, 가로세로퍼즐, OX 등의 퀴즈를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궁화 손편지 쓰기>로, 이 프로그램은 독립운동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무궁화 편지지에 직접 편지를 쓰고, 작성한 편지를 벽에 부착한 후 인증샷을 촬영해 임시정부 배지를 획득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독립운동가들에게 감사의 내용을 담은 <영상 이벤트>로, <무궁화 손편지 쓰기>에 참여한 후 응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일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4월 15일(화)까지 삼일절에 제공한 홍보물 QR코드를 통해 별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영상 가운데 최종 선정된 80개의 영상은 광복절(8·15) 80일 전부터 1개씩 기념관과 기념관 SNS 등에 업로드할 예정이며, 광복절 당일에는 80개의 영상을 하나로 편집해 상영해 모두와 함께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독립] 독립운동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무궁화 손편지 쓰기' 체험 사진



무궁화 손편지 교구재

참가자들은 이번 삼일절 체험프로그램에 대해 “삼일절에 방탈출 프로그램처럼 흥미있게 참여했고, 저학년 아이와 역사 공부하기에 활동지 내용과 난이도가 좋았습니다. 좋은 교육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아이와 오기에 너무 좋았고, 퍼즐과 퀴즈 문제를 풀며 관심을 가지고 전시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 연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체험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준비를 해주시고 주요한 내용을 알아갈 수 있게 퍼즐 풀기, 미로찾기 등을 해주신 것이 좋았고, 유익했습니다.”, “다시 한번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함을 듬뿍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 전체적으로 매우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삼일절 계기 임시정부 연계 체험프로그램은 많은 참여자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그 감사함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임시정부의 중요한 수립 배경인 삼일절의 의미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독립

독립운동가에게 감사편지 쓰기



과자 박스



기억해요! 그날의 함성 : 대한독립만세!

만세 삼일절 영상 이벤트



- 광복80주년 축하 및 독립운동가에게 전하는 감사 편지 내용을 담은 영상을 남겨주세요.
(감사 편지 쓰기 참여자 815명 대상)
- 영상 제출은 3월 1일(토)부터 4월 15일(화)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 80명을 선정하여 스타벅스 상품권(1만원권)을 드립니다.
- 당첨자는 5월 중 개별 연락드립니다.
- 올려주신 영상은 본 기념관의 광복80주년 기념 홍보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삼일절 '기억해요! 그날의 함성: 대한독립만세' 홍보 배너



[만세] 광복80주년 축하 및 감사편지 내용을 담은 '영상 이벤트' 체험 사진



자율주행 기반의 문화해설 서비스

인공지능 로봇 '큐아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김희곤 관장과 한국문화정보원 정운현 원장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적용된 자율주행 기반의 문화해설 서비스 로봇(이하 큐아이*)의 구축 및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14일 체결하였다.

본 협약을 통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국가보훈부 기념관 최초로 올해 12월부터 국내외 대국민 대상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의 본격적인 '큐아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처음 선보이게 될 '큐아이' 서비스는 기존의 동행 안내 문화해설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문화해설 서비스를 적용하여 관람객들에게 맞춤형 해설과 심화 질문이 가능한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걸어온 길,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까지 '큐아이'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계획이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서비스 예정인 인공지능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는 박물관,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 현장에서 '동행 안내 문화해설 서비스'와 '인공지능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문화 현장의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문화관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관람 지원 서비스(수어 해설, 동행 안내, 어린이 해설 서비스 등)를 확대 도입하여 차별 없는 문화 향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정운현 원장과 김희곤 관장



큐아이 기념관 내 예측도

* 인공지능 로봇 '큐아이'란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와 자율주행 기반의 문화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말함. '큐아이'는 관람객의 문화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문화시설 14곳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제106회 3·1절 기념

〈기억상자〉 순회전시 개막

기념관은 지난 3월 1일, 삼일운동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세 곳- 범어사 정보박물관, 김포독립운동기념관, 화성독립운동기념관-에서 2025년도 첫 기억상자 순회전시를 개막하였다.

범어사 정보박물관에서 열린 기억상자 순회전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쫓 피우다(3.1.~4.13.)〉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함께 범어사의 근대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독립운동에 기여한 불교 지도자들의 활동도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임시정부의 고문으로 활동한 오성월과 임시정부의 특과원으로 세계피압박민족대회에 대표로 참가한 김법린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다.

화성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을 알리다(3.1.~5.11.)〉라는 주제로 기억상자 순회전시를 진행한다.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보복 중 가장 잔학한 만행으로 꼽히는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의 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약상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3·1운동의 정신이 깃든 곳이자, 주비단을 결성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한 독립운동가 심영택 선생의 고향이기도 한 김포에서도 〈3·1운동의 함성,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다(3.1.~4.27.)〉라는 주제로 기억상자 순회전시가 진행된다.

특별히 올해 기억상자 순회전시에서는 기념관이 새로이 제작한 미디어상자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기념관의 전시 영상 아카이브와 사이버 기념관인 〈이어온〉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념관은 다음 분기에 매한윤봉길의사기념관,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문화공간 이육사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기억상자 순회전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기억상자 순회전시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알리고 동시에 지역의 독립역사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범어사 정보박물관 순회전시 전경



범어사 정보박물관 순회전시 개막식

‘기증자의 벽’ 제막식 개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지난 2월 28일 ‘기증자의 벽’ 제막 행사를 거행하였다. 이번에 설치한 ‘기증자의 벽’은 기념관 개관 이후 3돌을 맞이해 2018년부터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28명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증자의 벽’은 반영구적이며 실내 공간과 조화를 이루고 관람객의 눈에 잘 띄는 곳인 1층 오른쪽 기둥에 설치되었다. 검은 철판으로 기둥 3면을 두르고 액자형 명패를 가운데 붙여 소박하며 수수하게 꾸몄다. 이후 지속적인 기증자를 위해 100여 명의 이름을 담을 수 있게 하였다.

28명의 기증자는 김태식, 김영설, 김형우, 신동규, 장장식, S.W.Thomas,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민경엽, 박유철, 조범래, 한시준, 김영옥, 김희곤, (재)우당이회영선생교육문화재단, 성진희, 양제경, 이공희, 이태수, 공재연, 배경한, 오봉실, 장석위, 한상도, P.D.Cuddy, 김임용, 권영혁, 정용서, 정병준 등이다.

주요 기증자료는 박은식 선생의 『한국통사』 초판본, 김구 선생의 『광명정대』 유목, 양우조·최선화 선생의 『중경관 독립신문』 등 12,600여 점이다. 기증자료는 보존처리 뒤 수장고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기념관 연구·전시·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기증자의 벽’ 제막에는 강정에 국가보훈부장관을 비롯해 자료를 기증하신 박유철 前국가보훈처장, 한시준 前독립기념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기증자의 벽’의 표어 “빛나는 역사, 우리가 이어갑니다!”처럼 소중한 기증자료를 잘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해왔다.



기증자의 벽 제막 행사

관장이 전하는 임시정부 이야기 1편 〈국군의 중추가 된 광복군 100인〉 특강 운영

기념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가치 및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미래세대에게 알리는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념관장이 직접 들려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 특별 강연(총 5강)’을 운영한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3월 26일 기념관 의정원홀에서 〈국군의 중추가 된 광복군 100인〉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강연을 맡은 김희곤 관장은 대한제국군에서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 이야기를 광복군 출신 국군 100인을 통해 조명하였다.

이번 강연은 많은 시민들을 포함하여 국군 장병들이 함께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우리 국군의 뿌리인 한국광복군과 이후 국군의 성립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관은 이번 첫 이야기를 시작으로 올 한 해 5차례에 걸쳐 임시정부의 역사에 대한 알찬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특별 강연은 별도 사전접수 없이 기념관을 방문한 시민들이 모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그 두 번째 강연은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유럽에서 활약한 임시정부 인물들〉을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며, 구체적인 강연 일정은 기념관 공식 누리집 및 인스타그램 등 기념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기념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 강연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임시정부의 역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특별 강연 모습

3.1절 문화행사

‘임시정부기념관의 삼일절’ 개최

기념관은 광복 80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지난 3월 1일 토요일 삼일절 계기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임시정부기념관의 삼일절’이라는 행사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기념관 1층 로비 포토존 및 2층 상설전시실 1관 앞에 체험부스를 마련하여 체험프로그램 3종 <삼일향연: 삼일촬영회>, <초모! 한국광복군>, <3월 1일에 온 초대장>을 운영하였다.

<삼일향연: 삼일촬영회>는 기념관 1층 로비에 마련된 태극기 포토존과 임시정부의 삼일절 기념식을 모티브로 꾸며진 전시 포토존에서 관람객들이 기념관에서 준비한 한복 및 광복군복을 입고 자유롭게 사진을 찍는 체험이다. 또한 삼일절을 맞아 한복을 입고 기념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임시정부 티백 세트를 증정하

는 <임시정부의 귀빈을 찾습니다>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기념관 2층 상설전시실 1관 앞에서 진행한 <초모! 한국광복군> 체험과 <3월 1일에 온 초대장> 체험은 관람객들이 직접 한국광복군 모자를 만들고 1943년 임시정부가 발송한 삼일절 기념식 차회 초대장을 완성해감으로써 과거 임시정부의 활동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념관은 이번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정부에서 제정하고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기념해 오고 있는 삼일절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했다. 삼일절 계기 문화행사에서 운영한 다양한 포토존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가치를 전달하고 긍정적인 역사 인식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의복체험 후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관람객의 모습



삼일향연: 삼일촬영회 포토존

1월

1월 2일

2025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시무식 개최

📍 의정원홀

2월

2월 28일

〈기증자의 벽〉제막식 개최

📍 1층 복합문화공간

3월

3월 1일

2025년 상반기 특별전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개막

전시기간: 2025. 3. 1. ~ 2025. 7. 13.

📍 1층 특별전시실

제106회 삼일절 계기 문화행사

〈임시정부기념관의 삼일절〉개최

📍 1층 복합문화공간

제106회 삼일절 계기 체험 프로그램

〈기억해요! 그날의 함성 : 대한독립만세!〉운영

📍 의정원홀

기념관 타임라인

2025 0101 ~ 0331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개막
전시기간: 2025. 3. 1. ~ 2025. 4. 13.
📍 범어사 성보박물관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개막
전시기간: 2025. 3. 1. ~ 2025. 5. 11.
📍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개막
전시기간: 2025. 3. 1. ~ 2025. 4. 27.
📍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 3월 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대학 교양 강의 운영
📍 단국대학교 죽전·천안 캠퍼스
- 3월 25일
알기 쉬운 교과연계 임시정부 역사체험 교육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나> 진행(~ 11. 25.)
📍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
- 3월 26일
광복 80주년 특집 강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 운영
📍 의정원홀

2025년 2/4분기 기념관 주요소식 알림

4~6월 교육프로그램 안내

가정의 달과 호국보훈의 달이 있는 4~6월을 맞이하여 기념관을 찾은 모든 분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육 안내



신청 링크

전시해설 안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관람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해설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니, 해설업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매주 화~금 11:00
14:00
15:00(특별전시)
16:00

매주 토·일/공휴일 11:00
13:00(특별전시)
14:00
15:00(특별전시)
16:00

장소

기념관 1층
안내데스크

단체해설문의

전시운영과
02-772-8756
02-772-8763

접수방법

현장접수
(회당 30명 이내선착순, 별도 예약 없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전시 내용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상설전시 내용을 축약해 담은 '기억상자' 전시

장소 및 전시기간

범어사 성보박물관
2025. 3. 1. ~ 2025. 4. 13.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2025. 3. 1. ~ 2025. 4. 27.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2025. 3. 1. ~ 2025. 5. 11.



2025 상반기 특별전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

전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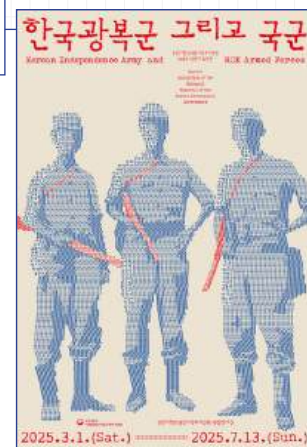
2025. 3. 1. ~ 2025. 7. 13.

장소

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

전시 내용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되는
대한제국군,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살펴보고 임시정부에서
이어진 대한민국 계승을 군사적
차원에서 조망



유물 기증 안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갈 많은 분들의 기증을 기다립니다.

기증 대상

- ㉠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을 조망할 수 있는
관련 기록물(문서,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유품, 생활용품 등 역사자료
- ㉡ 출처가 분명하며, 역사적 의미 및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료

기증 문의

연구교육과 02-772-8794

2025 국외 교류전시

〈A Dream of Peace : The Untold Story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가제)

전시 기간

2025. 6. 18. ~ 2025. 9. 5. (예정)

장소

주벨기에유럽연합한국문화원 특별전시실

전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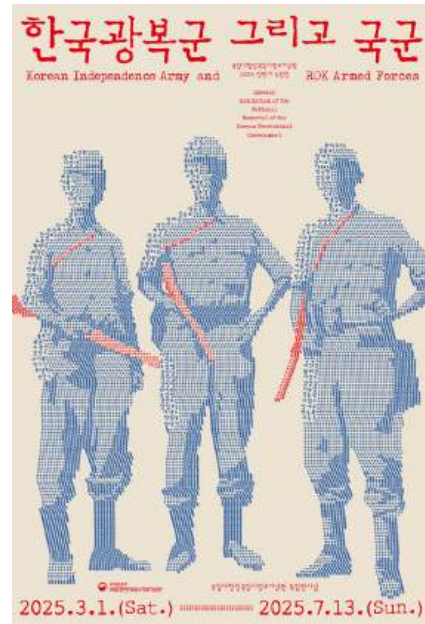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유럽 내 활약상과 더불어
임시정부를 도운 유럽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소개

2025년 상반기 특별전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 전시관람 이벤트

우리나라 국군의 뿌리가 되었던 한국광복군의 이야기를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 특별전을 통해 만나보세요.
전시관람 후기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인스타그램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기념관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참여방법

1. 기념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imjung0411) 팔로우
 2. 특별전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 전시관람 후
이벤트 게시물에 '관람후기' 댓글 남기기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미동의 시 이벤트 상품 발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상품 발송이 완료될 때까지 인스타그램 DM을
전체 허용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DM 차단 시
추첨 대상, 상품 발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2025. 4. 1. ~ 2025. 5. 18.

당첨자 발표 2025년 5월 말 예정
기념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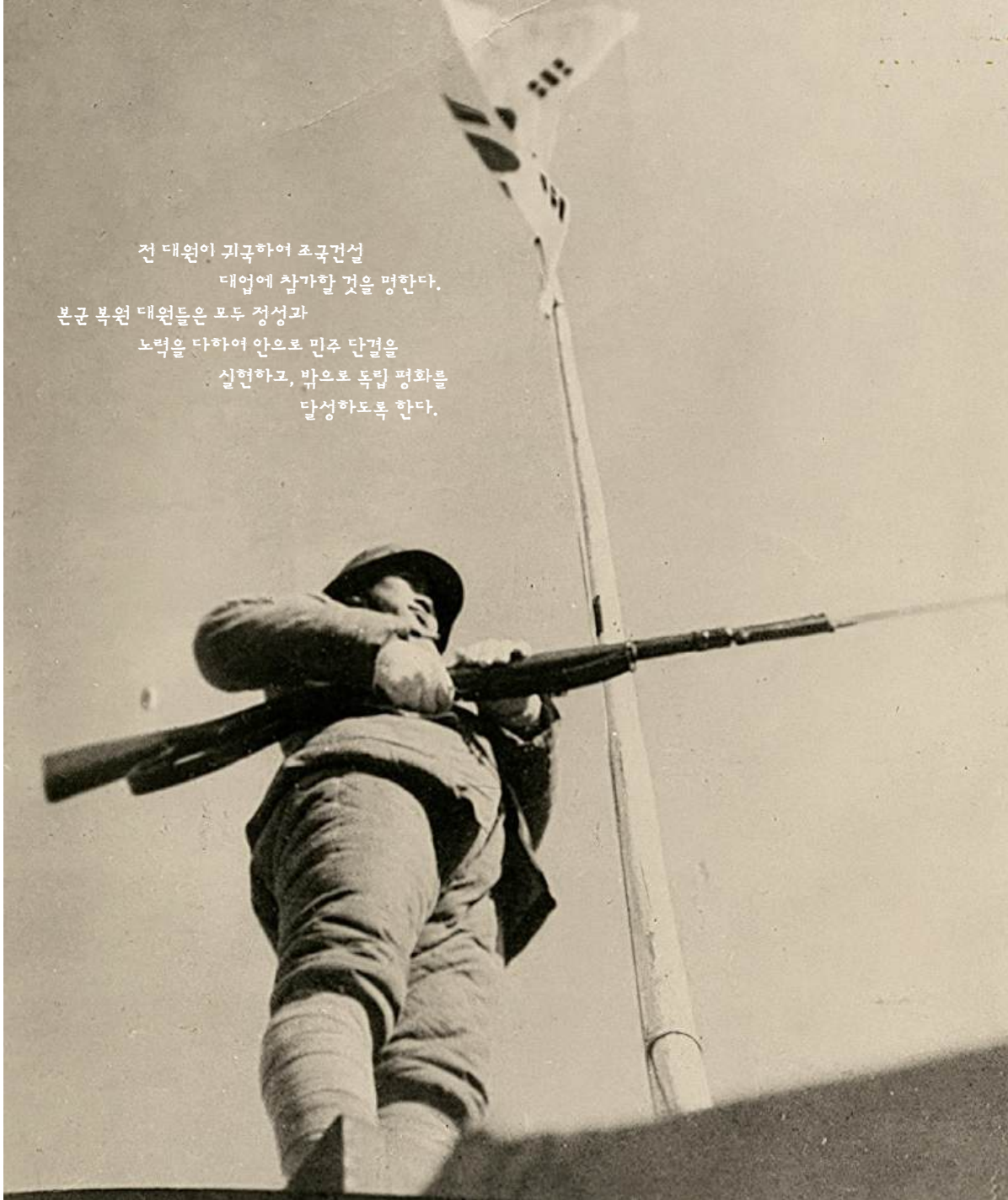
<독립신문> 제11호
암호문 풀어보기 퀴즈 정답
신년축하

소식지 <독립신문> 관련 문의
E-mail: imjung0411@korea.kr





전 대원이 귀국하여 조국건설
대업에 참가할 것을 명한다.
본군 복원 대원들은 모두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안으로 민주 단결을
실현하고, 밖으로 독립 평화를
달성하도록 한다.



The Korean National Army. Company II in Chungking.
A Sentry in Front of the Barracks. Received by Dr.
Rhee, June 6, 1943, from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한국광복군 충칭 제2지대를 지키는 초병 사진

©독립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National Memorial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